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14 1982년 8월 30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Monday, August 30,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SEP 1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미국금리 의존말라"

10개 주수상들 연방안 거부

트루도정부의 6~5% 정책에 반대성명

(핼리팍스)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미국의 금리에 의존치 않는 캐나다 독자적인 금리정책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26일 캐나다주수상들이 주장했다.

이날 노바·스코시아주 핼리팍스에서 가진 제23차 연례 주수상회의 폐막성명에서 10개 주수상들은 만장일치로 미국의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현 금리정책을 포기토록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주수상회의는 이보다 앞서 2년간 임금및 물가를 6~5%선으로 억제하는 트루도정부 경제구제책에 반대를 표시했다. 10개주중 온타리오주만 이에 찬동했다.

금년도 주수상회의 의장인 존·부카난 노바·스코시아주수상이 발표한 성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외국자본 유치에 큰 장애가 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Agency)의 역할을 대폭 개편할 것.(마니토바주수상은 반대.)"

●캐나다의 석유산업에 더 많은 해외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프로그램(NEP)을 변경할 것.

●각 주정부의 보건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보조비를 삭감치 말것.

●정부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방·주정부는 장기 종합계획을 세워 고용증대를 노릴것.

한편 연방정부 경제시책에 정면도전한 주정부들의 합의내용이 오타와 정가에 전해지자 연방야당인 보수당은 즉각적인 찬사를 보낸 반면 여당의 각료들은 일체 침묵했다.

주수상들은 경제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을 위해 오는 13일 연방정부와 만나자고 제의했다.

주수상 연례회의 공동성명은 또 "연방정부가 금융정책을 즉각 바꾸어 금리가 하락추세일때 국민이 그로 인한 혜택을 십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 금리가 미국수준을 쫓아가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부카난수상은 「자본의 유출을 막기위해 캐나다의 금리가 미국의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캐나다 중앙은행 제랄드·부이 총재의 말을 일축하고, 캐나다의 금리가 미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 작년에 50억 달러의 캐나다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갔음을 지적했다.

주식·금값 폭등일로

온스당 $424, 다우존스 892

주식·금등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래량도 대폭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하 발표와 더불어 미국 연방금융위원회(중앙은행: Federal Resenve Board)의 도매금리(Discount Rate, 캐나다의 Bank Rate에 해당)가 10%까지 떨어지자 경기회복을 예상한 투자가들이 「사재기」를 계속하고 있다.

토론토증권시장의 평균 주식값 지표는 26일 하루동안 524를 기록, 1,588.67을 기록했다.

세계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뉴욕증권시장의 다우존스(30개 주요기업) 지표도 계속 상승, 26일의 +7.52와 함께 지난 10일간 또 +60을 기록, 26일 종장에서 892.41을 기록했다. 최악으로 내려갔던 7월중에는 770대까지 떨어졌었다.

한편 온스당 320달러(미화: 국제시장의 금값을 미화로 표시했다.)대에 머물렀던 뉴욕시장의 금값은 26일에는 지난10일내 1일 최대증가를 보여 $18 오른 $424가 됐다.

26일 런던에서는 온스당 $16가 올라 온스당 $417를 기록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사 고▶

취재전담반 구성 / 신속한 발송계획

토론토 한국일보는 전대통령 캐나다방문 특별취재반을 구성, 일간지로서의 신속성을 십분 발휘할 예정이다.

본사의 유승민부장은 28일 아침 오타와지국장 이태은, 몬트리얼지국장 정관성씨와 현지서 합류, 대통령의 도착서 부터 출발까지를 취재한다.

28일 교민초청 리셉션에는 이석현편집장, 30일 트루도수상초청리셉션 에는 김명규지사장도 참석, 지원하며 본사데스크는 조미래부장이 김영석기자와 함께 제작하면서 서울본사및 미국의 각지사에 기사및사진송고등을 담당한다.

유부장이 지휘하는 현장취재반은 서울 본사에서 오는 한국일보취재진 조병피부장, 윤국병 청와대 출입기자, 박태홍 사진기자와, 한국일보 뉴욕지사에서 오는 기자 2명과 협력, 강력한 공동취재망을 형성한다.

본사는 대통령체류중 그날의 신문을 오타와로 공수한다.

토론토지역서는 전과 같이 한국계 식품점에서 매일매일의 신문이 판매된다.

식품점 배달시간은 저녁~밤이다.

행정부 독주에

국회의원들 사기 최저

(오타와)연방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수립이 국회가 아니라, 주로 수상과 각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좌절과 불만"을 느껴 사기가 사상최저로 떨어졌다고 캐나다변호사협회가 보고했다.

의회제도 개혁에 관한 112페이지에 달한 특별보고에서 이 협회는 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전연 놀라운 일이 못된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정책수립기관이기보다 무능력한 국민의 의사토론 광장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8명의 변호사, 전직 정치인및 언론인들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3개정당의 대다수 의원들과의 회견을 통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동감한다는 한 의원은 현재의 상태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캐나다는 의회제도의 기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핼리팍스에서 있은 연례 주수상 회의에 참석한 윌리엄·데이비스「온」주수상 (오른쪽). 그는 10개주 수상중 유일하게 트루도정권의 6~5% 억제안을 지지했다. 왼쪽에서 데이비스수상과 대화하고 있는 이는 피터·로히드 알버타주수상. (26일 불루노스 II 유람선에서)

왜 주식값이 뛰는가?

올랐다→내리다→또 오른다

미국금리 하락·은행신용도 불안

현재 주식·금값의 폭등하는 이유에 대해 세계적 증권회사 메릴린치 토론토 사무소에 근무하는 강상욱씨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본다.

▲주식폭등의 배경은?

첫째, 한미디로 주식값이 너무나 저평가(Under Valued) 되어 있었고, 다른것들에 비해 오르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8월9일에 다우존스 산업부문(DJIA)이 770까지 내려갔었는데, 16년전인 1966년에 이미 DJIA의 최고는 [illegible]. 물론 Dow Johnson에 속한 대부분의 주식들에 대해는 은행이자에 상당하는 배당금이 매 분기별로 지급은 되어 왔다고 하더라고 지금의 주식값이 16년전의 주식값보다 싸다면 이 주식값이 얼마나 저평가 되었던가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 때문이다. 유통통화량의 갑자기 통화정책을 변경했 증가에 따라 이자율을 조정해 오던 중앙은행이 금요일인 8월13일(미국의 유통통화량 집계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10분에 발표된다.) 유통통화량이 상당히 늘어나 이자율은 내릴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은행이자률을 0.5%나 떨어뜨렸다. 중앙은행의 돌변한 통화정책 변경을 투자전문가들이 간파하게 하였고, 다음날 부터 주식값은 11일간이나 계속 폭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원가 절감 정책에 의한 점이기는 하나, 미국기업의 이윤이 지난 두분기 보다는 현저히 좋아졌고,

넷째,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는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데도 기인한다. 이는 멕시코, 폴란드, 남미등 미국은행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국가들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미국의 은행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현금을 찾아 금이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식값은 이대로 계속 상승할 것인가?

주식사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과거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를 관찰해 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1966년의 경우 DJIA가 급격히 90포인트나 올랐다가 급격히 50포인트 떨어진 머물렀고, 1974년 불황시는 DJIA가 120포인트나 급상승했다가 122로 급강하 하여 다음, 이 상태에서 14주간을 머물은 후 진정한 상승세를 보였고, 1970년에는 100포인트 올랐다가 60포인트 떨어진 다음 12주간은 17주간을 머물은 다음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이번 증권폭동에서 DJIA가 770에서 892.41까지 122포인트나 급상승했는데 이대로 계속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급강했다가 다시 올라 갈 것인가?

역사가 항상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과거에 패턴을 밟는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사기보다는 다시 떨어지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반드시 사야 한다는 이론이 될 것이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		12.5%
90일	13.5%		13 %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산금화상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김하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사농자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환 영

전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캐나다
공식순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통상및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것으로 기원드립니다. 1982년 8월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무역관 (416)977-8784
몬트리얼무역관 (514)878-3425
뱅쿠버무역관 (604)683-1820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터키대사관무관 피살 외교관 보호책에부심

(오타와)27일 아침9시15분 캐나다주재 터키대사관의 무관(대령)이 알메니아(Armenia)인에 의해 피살됐다.

이날 출근길의 무관이 몰던 차가 웨스톤·파웨이 교차로에 멈췄을 때 다른 차로 좇아온 괴한이 차에서 내리면서 운전대에 있던 무관을 권총으로 사살했다.

도주했던 범인은 후에 체포됐다.

캐나다에서 외국 외교관이 피살된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다.

약3주전 알메니아 과격파는 캐나다에서 복역중인 알메니아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일이 있다.

흑해 연안의 소련 남부, 터키 북방에 살던 알메니아족들은 1900년대 초에 150만명이 터키인들에 의해 집단살해 됐다고 주장해왔다. 알메니아족들의 절반은 소련에, 나머지 반은 터키에 소속돼 살고 있다.

이번 외교관 피살사건에 오타와 외교가와 경찰당국은 경악, 소홀히 해왔던 외교관 보호책을 강구중이다. 이번 사건을 맞아 경찰은 캐나다를 방문하는 전두환 대통령 일행의 신변보호에 더 큰 신경을 쓰게됐다.

유태인 1만명 학살 혐의 독일계노인 41년만에 기소

토론토거주 독일계 캐네디안 시민이 2차대전중 1만1천여명의 리투아니아(발틱해 연안의 소련령)계 유태인 학살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스욕지역의 알버트·헬뭇·라우카(73)씨는 지난 6월 리투아니아지역의 유태인 남녀, 어린이등 1만5백명 학살 방조혐의로 체포됐었다.

이 사건은 41년10월에 있었다.

라우카씨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41년8월 534명을 사살. 그는 카우나스지역의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근처 군기지에서 쏴죽였다.

▲41년9월 같은 방법으로 1,845명 살해.

▲41년10월28일 카우나스의 광장에서 9,200명을 추려 같은 장소로 데려가 죽임.

▲41년9월 유태인 1명이 포크 1개를 숨겼다는 이유로 때리고 쏴죽임.

▲43년11월께 다른 2명의 장교를 도와 「샤피로」라는 이름의 남자와 부인, 아들, 모친을 죽임. 라우카는 이중 1명을 죽인 것으로 보임.

라우카씨 변호사 윌렴·파커씨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검찰의 혐의는 서독정부가 가진 증인들로부터의 진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라우카는 히틀러친위부대의 장교로 있을 때 유태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라우카는 9월20일 서독으로의 강제송환 여부에 관한 재판에 앞서 보석금 15만달러를 내고 일시 석방됐으나 신변안전을 위해 토론토·돈 교도소 병동에 머물러 있다.

그는 50년 캐나다에 이민올때 독일 시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가 캐나다 새헌법상의 인권조항에 불구, 독일계 이민자로서 독일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주목된다.

전대통령 기념우표
아프리카4국·캐나다순방

(서울)한국 체신부는 지난 17일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및 캐나다 방문 기념우표를 발행했다.

상호우의 증진과 경제협력 기틀을 다지기 위해 검은 대륙(아프리카)의 케냐, 나이지리아, 가봉, 세네갈 및 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전대통령의 등정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기념우표는 양국원수와 양국기를 도안으로 한 60원짜리 5종으로 각 2백만장씩, 120원짜리 5종의 소형시트도 30만장씩 발행했다.

◁금주의 행사▷

(8월30일~9월5일)

◆2일(목) 하오7시 토론토한인성서신학원 개강
곳: 토론토한인장로교회 연락처: 535-6864
(1182 Davenport ,Tor.)

◆3일(금) 하오 8시 연극동호인 발기회
곳: 3우스튜디오(랜스다운 서브웨이 북서쪽)
58 Wade Ave. Tor.
연락처: 960-0074(이장성), 225-7980(김상옥)

◆3일(금)~5일(일) 청년신자 묵상회
곳: 대건회관(한인가톨릭회관)
(439 Dundas St. E. Tor.)
주최: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연락처: 863-0415

◆4일(토)~5일(일) 상오 8시 30분
제2회 추계야구대회
주최: 브랜든스포츠사
곳: 센테니얼파크 야구장
연락처: 598-3732, 755-6434

◆4일(토) 상오 8시30분-하오6시
교회학교교사 연합수련회
곳: 토론토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연락처: 535-68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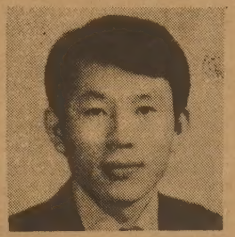
생활영어

①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그동안 주1회씩 본지에 연재, 많은 독자들의 영어실력향상에 도움이 돼온 민병철담당 생활영어를 새로운 모습으로 연재합니다.

북미생활에 필수적인 영어회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영어를 담당한 민병철씨는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이며 한국 중앙대학의 영어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민병철 씨

COULD YOU PAGE MR. FIELDS, PLEASE?

교포 한분이 미국을 방문하러 오는 친척을 시카고의 O'hare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만나서 함께 나오다가 인파에 휩쓸려 잠깐 사이에 손님을 잃게 되었다.

O'hare 공항은 평균 1분마다 한대꼴로 비행기가 이착륙한다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the busiest airport in the world)이지라 한참을 찾았는데도 찾을길이 없어 information desk(안내계)에 가서 「~씨 좀 마이크로 불러찾아 주시겠읍니까?」라는 의미로 Could you call Mr. Hong Gil-dong, please? 라고 하였더니 처음 한두번은 이해를 못하더니 세번째야 비로소 알아듣고 마이크로 불러 주더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적절한 표현은 Could you page~please? 가 있다. 이때의 page는 「책 페이지」란 말 외에 동사로써 「이름을 불러 ~를 찾다」라는 뜻이다. 공항, 병원, 백화점과 같은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확성기를 통해 사람을 찾을때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부탁을 받은 안내계는 Paging~. Please come to the North West Airlines information desk.(~를 찾습니다. 서북항공 안내계로 오십시오) 혹은 Paging~. Please meet your party at the North West Airlines information desk. (~를 찾습니다. 서북항공 안내계로 오셔서 손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안내방송을 해주게된다.

이때 Could you page ~, please? 대신 사역동사 have를 사용해서 Could you have ~ paged,,please?라고 해도 같은 뜻이된다.

A: May I help you?
B: Yes. Could you page Mr. James Fields, Please?
A: Surely. Could you spell the name, please?
B: J-A-M-E-S F-I-E-L-D-S.
A: Thank you.
B: You're welcome.
A: 도와드릴까요?
B: 네, 제임스 피일드씨를 마이크로 불러 찾아 주시겠읍니까?
A: 물론이죠. 스펠을 좀 불러주시죠
B: J-A-M-E-S F-I-E-L-D-S.
A: 고맙습니다.
B: 천만에요.

*party: 상대방. T가 D로 유성화되었다가 다시 우리말 「리」에 가깝게 발음되어 「파리」로 들린다.
*〈발음〉 please:「프리스」가 아니고 「l」발음인 경우 혀끝을 윗니와 잇몸사이에 밀착시켜서 「플리스」로 발음할 것.
ex) blue 〈블루〉, black 〈블랙〉

6.25 참전용사 레그씨 한국방문기

6.25동란때 캐나다 참전용사였으며 캐나다군 예비역소장인 B.J.레그씨가 작년 9,10월중 한국을 방문, 한국에 대한 인상기를 썼다.

작년까지 캐나다군 재향군인회(Royal Canadian Military Institute) 회장이었던 레그씨는 현재 토론토에서 경제관계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6.25후에도 한국을 수차례 방문했었다.

레그씨가 재향군인회지 8월호에 기고한 이 글은 캐나다군 참전용사회 회원들의 한국여행을 주선했던 신세계여행사의 김창범씨를 통해 입수된 것으로 발췌·요약한 것이다.

◆한국을 방문중 남덕우 전국무총리(왼쪽)와 환담하는 레그씨(오른쪽). 가운데 케·로빈슨연방국회의원이 두사람을 소개했다.

경이로운 한국의 발전상
전후 30년만에 군장비 국산화

한국동란이 발발하자 나는 지미·빈 중장 휘하의 캐나다군 기갑부대 훈련소장으로 징집됐다. 이 당시 징집된 군인들은 모두 지원병으로 예비역 용사, 일반시민, 현역 군인중에서 선발자들은 모두 용기 백배했다.

작년 9월 내가 캐나다 6.25 참전용사들과 한국을 방문했을때 이맹기 한국재향군인회장은 환영사에서 "당신들이 참전했을 때 한국은 파괴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 당신들은 30여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을 보고 또 한번 놀랐을 것이다."고 말했었다.

우리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트루도 수상이 바로 한국을 방문중인 시기로 더욱 의의가 컸다.

한국의 재방문이 단순한 관광이나 축제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한국의 최전선도 방문했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약 백만명의 병사들이 155마일의 휴전선에서 북과 대치하고 있다.

우리는 수개의 땅굴을 돌아보면서 북한의 침략근성도 엿보았다. 이 땅굴은 바로 한국전선의 조용하고도 뜨거운 단면을 나타내준다.

터널이 있는 최전선의 긴장감과는 달리 10월1일의 한국「국군의 날」기념식은 화려하고도 웅장한 것이었다.

국군 창설 33주년을 맞이한「군사퍼레이드」는 영국군의「빅토리아 퍼레이드」나 프랑스의「바스티유 데이」와 견줄만한 규모이며 또 군사장비 전시와 기술면에서도 공산권국가의 군사동맹인 와르샤와조약기구 군사퍼레이드와 견줄만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날 약 20만의 시민이 참가한 5.16광장에 전시된 모든 군사장비가 한국에서 만든 것이란 점이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캐나다의 현실과는 너무도 차이가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비교적 긴 연설을 하였으나 시민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고 군인들은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부동자세로 서있었다.

전대통령이 각 부대를 사열할때 병사들은 "충성"하고 큰소리로 외쳐댔다.

우리 일행이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때 가장 인상깊은 것은 동란후 30년간의 발전상과 더불어 한국인들의 따뜻한 우정의 표시였다.

일행중 한사람이었던 맥도날드소령은 "나는 젊었을때 캐나다공병대의 일원으로 서울에 왔었다. 당시 모든것은 전쟁으로 쑥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9백만의 이 도시에 지하철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뚫렸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발전이다"고 감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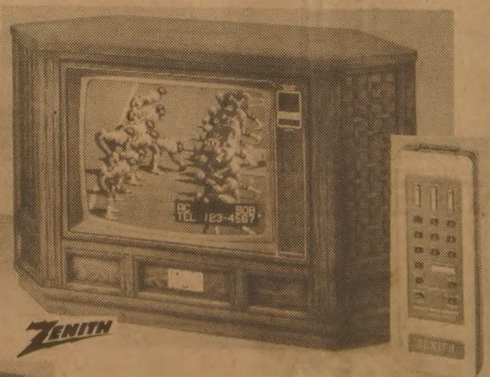
해리·힌소령은 "2차대전, 한국동란등 20년간 군인으로 살은 나는 특히 한국군의 발전상에 놀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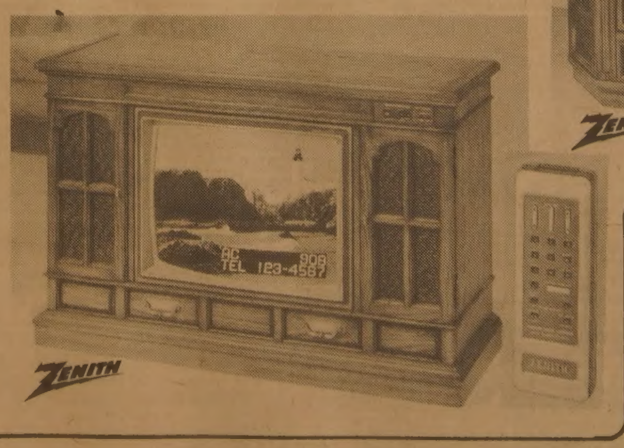
다시한번 우리 일행을 초청해주고 우리의 한국방문을 보살펴준 이맹기 예비역제독에게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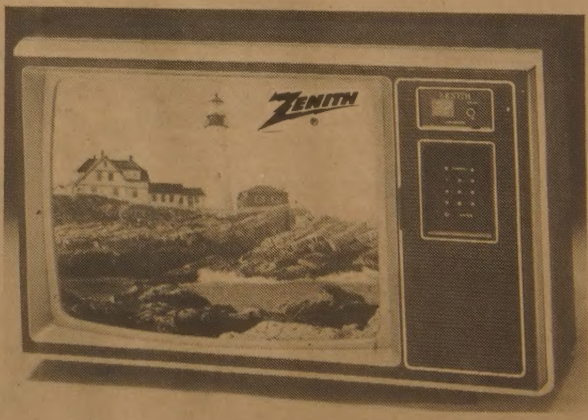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ZENITH
82년도 ZENITH
TV & VIDEO 재고정리

●112CHANNEL SPACE PHONE
4 SPEAKERS, AUDIO OUTPUT
AUTOMATIC ON/O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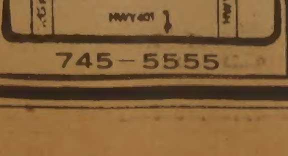




●105 CHANNEL SYSTEM
SYSTEM 3 20" 칼라TV

Model No. VR 8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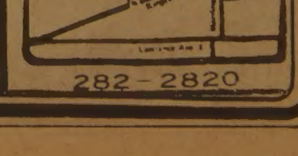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바바라」에 물으세요

▲필자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남녀 데이트… 친절한 대화법 익히는게 중요

『레이디 퍼스트』… 여성에 대한 정중한 예의

○문: 최근 이민온 총각입니다. 같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캐나다처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요? (딕시에서 영)

●답: 이 문제는 귀하처럼 이곳에 새로온 사람은 물론 대부분의 청년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적으로 진지하게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을 여자에게 소개하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므로 친절한 대화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귀하가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곳 습관이 아주 우연적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지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단계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유로 매력적인 여자(또는 남자)를 발견하지요. 그다음 귀하는 가볍게 「하이!」하고 인사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귀하가 첫번째로 취할 행동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부터는 날씨, 교통 또는 신문기사등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대화가 무르익어가면 그다음에 서로 이름을 교환합니다.

이때가되면 귀하와 상대방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를 찾아보며 만약 그 공통점을 발견하면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다음에는 두사람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활동에 초대하거나 같이 가면 됩니다.

물론 여성을 만나는 다른 방법도 있읍니다.

누나와 누이에게 부탁할 수도 있으며, 다른 친구에게 부탁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 자기 방법대로 사귀는 것도 또한 재미있읍니다. 전투를 빕니다.

○문: 이민 오기전에 항상 「레이디·퍼스트」란 말을 들었는데 막상 이민온 뒤에는 찾아보기 힘들군요.

그래도 서양이기에 「레이디·퍼스트」를 지켜야 하는지요? 특히 문을 열때나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를 가르쳐주십시오.(브로드뷰에서 한 신사)

●답: 「레이디·퍼스트」는 특히 50대이상 노년층에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느끼신대로 전과 같이 성행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자신이 문을 열 수 있는 경우 독립성과 자유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 「레이디·퍼스트」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노년층에서는 남자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여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정중한 예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귀하도 여성에게 정중하게 대하신다면 그들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문으로 들어갈때 누가 열어주면 매우 고맙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물건을 들고 들어가거나 나올때 저는 서슴치 않고 문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예의이며 상식입니다.

「레이디·퍼스트」습관을 따르는 또 한가지 기준은 그 여성이 귀하의 동반자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읍니다.

그 여자가 동반자라면 집이나 빌딩이나 자동차를 탈때 문을 열어주거나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게 합니다.

만약 그녀가 귀하의 동반자가 아니고, 또 매우 독립심이 강한 여자라면 그녀는 그런 호의를 베풀지 말라고 할것입니다.

또 그 여자가 동반자든 아니든 노인인 경우 「레이디·퍼스트」 습관을 따르는 것이 좋겠읍니다.

요즘 노인들은 매우 고독하기도 하여 귀하가 이 습관을 적절히 따른다면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받을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일본교과서 왜곡사건②—

우리 민족은 역사의식 빈약하다

강 신 봉 (캐나다한인연합회 이사장)

●강신봉 씨

잘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잘해서 잘되는 것이고, 못한 것은 모두 조상들이 잘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세 – 역사는 그렇게 잘난체하는 것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민족 속에 깊이가 없는 탓이고, 역사의식이 빈약한 때문이다.

술주정꾼 아버지더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자세, 못난 조상이더라도 똑똑한 자손 만들고 싶은 것이 역사의 흐름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일본의 후손들이 강도 도둑질한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감싸려 하는가? 그것이 바로 교과서왜곡사건이다. 글자 몇개를 바꾸어 놓았다고 역사가 바뀔리는 없다. 일본민족은 똑똑한 민족이지만 원래가 야비하고 치사한 짓을 잘하는 종자들이다. 일요일 휴무날 아침을 기해서 진주만을 폭격하던 소위 Sneaky attack은 세계역사 앞에 일본이 얼마나 사나이답지 못한 종자인가를 대명사처럼 입증하였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얌체같이 문구를 수정하였다고 한국이나 중국민족의 반일감정이 바로 잡아지는 것도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악화될 뿐 – 그래도 일본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얌체짓하는 것을 비호하고 있다. 그것이 일본이다.

문제는 그네들에게 일시적 흥분을 보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종자들에게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무시당하지 않는 길이다.

오늘날 일본이 좀 잘 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무시를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섬기지 못한 까닭에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가 우리의 황족을 내쫓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빌어먹는 생활을 하게 한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임자없는 고궁이나 가꾸어 관광객이나 끌어 모으려는 것이 얇은 식견이고, 잘났다는 정치가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될 적마다 새로운 정치를 한다하여 지난 것을 다 뭉개고, 자기 두각이나 나타내려는 것도 역사를 모르는 탓이다. 한인사회도 마찬가지다. 새 회장이 나오면 먼저 회장의 공적은 다 무너뜨리고, 벽돌을 새로이 쌓으려 하지만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민족에게 당하는 근본원인이 이러한데에 있는 것이다.

민족의 역사의식이 너무 빈약한 때문이리라. 계속성있는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사상이 필요한 민족이 아닌가?

〈끝〉

新映画

將校와 紳士

눈시울 젖도록 人間의 感情헤집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각설이 타령이 돼버렸지만 그것만큼 아름다운것도 이세상엔 흔치않다. 멜로드라마의 정석으로 참으려해도 눈시울이 젖도록 인간의 원초적 감정을 헤집어 놓은것이 「An Officer and a Gentleman」이다. 우리가 드러내놓기를 부끄러워하는 눈물과 기쁨과 사랑을 『점잖빼지말고 터뜨려 보라』고 부추기고있다.

불우한 과거를 갖고 오직 혼자인 리처드·기어는 자신의 껍질을 벗기는 방법으로 해군비행사관후보학교에 입교한다. 「병영영화」의 ABC대로 그는 순수하고 도덕적인 시골출신 데이빗·키스와 벗이되고 혹독하나 인간미를 갖춘 교관 루이스·가셋주니어로부터 모진 훈련을 받는다.

병영이 들어앉은 동네는 한적하고 가난한 곳으로 이곳 처녀들은 장교가 될 후보생과 결혼, 동네를 탈출하는것이 생의꿈. 가셋은 후보들이 입교하자마자 첫 훈시로 「동네처녀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기어와 키스는 종이봉투공장서 일하는 데브라·윙거와 리사·블런트를 만나 사랑에 젖는다. 영화는 사랑과 도덕과 양심을 삼삼 곁들여 지독히도 멜로물의 냄새를 풍기지만 출연진들의 사실적인 연기가 만들어내는 촉촉한 분위기로 재미만점이다.

후보생들의 훈련장면이나 사랑장면은 이제는 잊혀진 50년대의 러브스토리를 되살려내면서 이런류의 영화로선 최고급이었던 「지상에서 영원으로」의 기억마저 일구어낸다.

특히 전방군대 생활을 지내본 세대라면 그 모진 훈련생의 인내와 좌절의 생생함이 아름답기까지 할것이며 그 옛날 부대주변 촌색시들의 도시출병에 대한 동경에 아득한 미소마저 짓게된다.

여자관람객에는 손수건이 꼭 필요할 이작품은 에누리 한푼없는 감상적인 영화이지만 그센티멘탈함이 억지 없이 담백하게 표현돼 보고나면 울고 싶을때 운느낌. 흠이라면 기어의 파거회상이 군더더기처럼 산만한것. 사방에서 눈가로 손을대는 관객을 보면서 순간이지만 허물벗은 감정을 보는 마음이었다. 테일러·핵포드감독. 등급R. 헐리웃 차이니스서. 패라마운트 작.

환 영

전두환대통령 공식방문

모국 대통령의 첫 캐나다 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카 양국간에 우의와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교민의 지위향상은 물론 교민 상호간및 교민과 모국간에 보다 깊은 이해와 신뢰가 형성되어 굳건한 단합이 이루어질 것을기원합니다.

京畿

캐나다 경기중고교 동창회

기독교 강연 :
『이교도들의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고등교육』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연사 : E.S. McVETY박사 (캐나다 크리스천·칼리지 총장)

❖ 시간 : 9월13일 오후8시

❖ 장소 : 252 BLOOR ST.W.

74년이후 수준높은 성서학·신학·언어·기록교육학 강좌를 제공해 온 캐나다 크리스천·칼리지는 14개 유수대학에서 학위를 딴 18명의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많은 교수들은 CCC의 졸업생이기도 하며 기본·복음 신앙과 성경의 바른 해석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가을학기 등록이 가능하며, 전화는 226—6580. 주소는 5799 YONGE ST. CITY OF NORTH YORK, M2M 3V3으로 연락하십시오.

CCC는 연방정부및 마니토바정부의 운영허가를 받은 칼리지로 온타리오주의 각 학위수여 신학교들과 공동으로 학위수여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읍니다.

환 영

한·카수뇌회담

재 캐나다 육사 동창회

회장 김형수

한국교회의 문제점 ⑦

신앙은 은혜에 대한 복종

김낙중 (해밀턴한인연합교회 담임)

◆김낙중 목사

부흥회통한 환각요법 격퇴돼야

교인의식화는 목회자의 사명

이민 교회를 휩쓸던 부흥회 열풍이 이제는 한풀간듯 하다. 그러나 카리스마 운동은 여전히 맹위를 떨친다. 카리스마에 의한 신앙 부흥 운동 자체는 귀한 것이다. 다만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일부분만 채택하거나, 자연과 초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현현하는 계시의 일면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성례전 중심의 가톨릭 교회까지 가담한 것은 뜻밖이다. 종교 체험을 강조하는 입장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계시>로 착각되거나 그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신앙은 아래의 체험에 대한 위의 반응이 아니라 위의 주권과 은혜에 대한 아래의 복종과 감사이다.

교역자가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가 평신도 중심으로 자란데 있다. 일반적으로는 교인의 근시안적인 요구의 충족에 급급하고, 특별히 소수의 토박이 혹은 이른바 <기둥 장로>의 변덕스러운 주장에 타협하다 보니, 목회자가 앞장 서서 인도하지 못하고 교인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성례전과 신앙 고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교인들이 교회 분열 이후에 몸담을 곳을 찾아 교파에 가담하지만, 특정 교파의 신학을 채택하지도 않고, 소수 민족 교회에 대한 교단의 행정상의 일관성의 결여를 이용하여 교단의 장정이나 헌법은 준수되지 않는다. 이민 교회가 어느 종파 혹은 교단에 가입했더라도 교단 중심적이 아니라 회중교회적인 개교회 주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층 구조에 의한 지원과 보호가 없는 개신교 목회자는 텃세부리는 사람의 변덕에 다치기 쉽고, 그들과의 길지 않은 밀월이 끝나면 보따리쌀 준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개체 교회는 일관적인 신학과 원칙의 적용을 포기하고, 때로는 목회자가 양심과 신앙을 포기하도록 궁지에 몰아 넣기도 한다.

논리와 지조의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목회자는 신앙과 신학의 일관성을 상실하였다.

교인들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요구(felt need)가 사실은 그들의 진정한 요구가 아닐 수도 있다. 훈련되고 주의깊은 목회자는 교인의 바른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교인이 의식하지 않는다면, 의식화의 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아마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것처럼 화를 재촉하는데 빠른 길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교인이라고 불리우나 그들은 일반 이민의 생의 정황인 <주변 인간(marginal man)>으로서의 한계와 좌절을 안고 있다. 생활 수준과 환경으로만 친다면 애급의 종살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에 비길 바 아니지만, 부적응에서 오는 패배감, 무기력, 회향, 퇴영, 복고, 권태가 이민과 신세계를 연결하는 기분적인 피규정성이다. 게다가 이민 초기의 고난이 사막에서의 시련처럼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고, 가나안 원주민의 난숙한 문화에 압도되어 쉽사리 물질주의와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들에게 이식의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홀몬을 투여하고, 물을 주고, 시비하여 토착을 돕는 치료적 목양(therapeutic shepherding)이 실시되어야 한다.

저질의 부흥 집회를 통한 현실 망각의 환각 요법은 추방되어야 한다. 현실 적응의 생활력 뿐만 아니라, 현실 변혁의 지구적인 노력을 감당할 스태미너 배양과 구조악에 희생되지 않도록 항체의 투여가 실시되어야 한다. 고국의 영화를 안방에서 즐긴다는 비데오식, 실향민 위안의 밤같은 말씀과 목회는 지양하고, <용감한 신세계>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나 그안에 만발한 <악의 꽃>에 현혹되지 않는, <자연의 축복을 즐길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자격을 위한 훈련과 강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보라, 아직도 교회에서는 <사의 찬가>나 <학도가>에 가사를 붙인 노래나 <허사가> 따위가 복음성가라는 이름으로 애송되고 있고, 집에서는 <목포의 눈물>이나 <두만강 푸른 물에>가 애창되고 있다. 복고적, 회향적 취미에 순교 콤플렉스가 곁들인 생의 스타일에서 <오늘>과 <올 날>을 함께 살고, <영생>을 시식(foretaste)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글은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위해 씌어진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아니(no longer)>와 <아직 아니(not yet)>의 종말적 긴장 속에서, 실존적으로는 <죄인>과 <성도>의 이중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교인과 그의 공동체인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비판에 종사해야 한다. 참회와 성화가 지속되어야 한다. <보이는 교회>는 무오의 성소가 아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의 사명이 한시라도 망각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나와 나의 공동체의 개혁을 위한 진단이요, 자기 반성과 자아 비판이다.

사계의 권위자를 모셔다가 신흥 종교 비판의 집회를 한 일도 있고, <유사종교 연구회>라는 모임도 있다. 신흥종교와 기성종교, 유사종교와 참종교가 분류학적으로 다른 종류일 뿐만 아니라 정도의 차이인 경우가 많다. 나와 나의 교회는 언제라도 이단 사설이나 사이비 신앙 단체로 떨어질 위험 속에 있다. 그래서 함부로 이단 심문관의 보도를 빼어 형제를 해칠 권위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잡초없는 밭은 상상할 수 없다. 밀과 가라지는 섞여 자란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거늘, 누가 감히 "나는 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너는 가라지"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게 하겠다."(마 13:29-30)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단의 양심이 아니라 치료의 신앙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병명을 알아도 자가 치료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실망과 배신감만 더할 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병자와 함께 할지라.

<끝>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58>

어떤 殺人 ⑤

2천만원 들고 은행에 들어갔던 그녀는…

택시가 출발하고 조금 있다가 그녀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4시10분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다. 은행 마감시간까지는 아직 20분이 남아있다. 2천만원을 입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 시간을 놓치면 입금시키려해도 입금시킬 수 가없다. 내가 자기지시에 따르지않은 것을 알면 모세는 어떻게 나올까. 그이한테 과연 비밀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나한테 한번 더 기회를 줄까. 비밀을 털어놓을 때 놈은 남편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전화로 말할것이다." 한기수씨, 당신 아내에 대해서 할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겠소? 박문자 여사가 어떻게 놀아나고있는지 당신은 모르겠지. 쉽게말해서 내정부야, 내가 데리고 놀았단 말이요. 실컷 데리고 놀다가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래도 당신한테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하는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아내 감시 잘하시오. 당신 혹시 혈압 높은거 아닌가? 뭐 증거를 대라고? 하하하하. 그거야 간단하지. 박문자 여사의 나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부터 말해볼까."

『스톱! 세워주세요!』

Y은행이 보이는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이구, 귀떨어지겠네. 좀 살살 말할수 없어요?』

운전사가 불쾌한 어조로 말하면서 차를 급정거시켰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러야할 데가 생각나서요.』

그녀는 거스름돈도 받지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Y은행쪽으로 걸어가면서 다시 손목시계를 보았다. 4시25분. 은행앞에 닿았다. 문을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니야. 오빠말대로 해보는거야. 돌아섰다. 도로 문을밀고 밖으로 나왔다.

멍하니 서있는데 드르륵하고 셔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차도로 나와 다시 택시를 잡어탔다.

한편 회사로 돌아온 박두봉은 일손에 잡히지않아 한동안 멍거니 앉아있었다. 그는 담배를 연거푸 피워대면서 혼자서 괜히 실없는 웃음을 흘리곤했다.

『박형, 무슨좋은 일이라도있어?』

그와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문기(李文基)라는 동료가 궁금한듯 그를 보면서 물었다.

『아아니, 좋은 일은 무슨…』

『나갔다 오더니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아.』

그는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의자가 부서질듯 삐걱거렸다.

『기분이 좋기는…。 미치고 환장하겠어.』

『왜? 무슨 일인데?』

『그럴 일이 있어.』

그는 수화기를 집어들고 다이얼을 돌렸다.

『아줌마 들어왔니?』

『네, 들어오셨는데 어디신가요?』

가정부가 물었다.

『오빠다. 좀 바꿔라.』

조금 후 문자가 나왔다.

『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전화 했다. 별일 없었지?』

『네, 별일 없었어요.』

『은행에 갔었니?』

『네, 갔었어요.』

朴男 그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연극·동호인 단체
발기모임
십여년 이민역사속에서 잠잠히 불태워온 연극에의 정열을 모두어 연극 동호인 단체를 발족코자 합니다.
이 단체는 연극예술을 연구하며 교민을 위한 제전을 마련하고, 때로 에트닉 연극제에도 참여, 정열과 예술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체의 예술성을 승화시키고, 교민의 정신문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순수한 극예술 단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극예술에 경험을 가지신 분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연극을 사랑하고 열의를 가지신 분은 누구나 참가하셔서 연극동호인단체 발족에 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 때: 9월3일(금) 저녁8시
◎ 곳: 삼우스튜디오(58 WADE AVE 랜스다운 써브웨이에서 약간 북서쪽)
◎ 연락처: 이장성 960-0074
김상옥 225-7980
이광민 274-8889
연극 동호인 일동

IATA
―추석맞이―
럭키국립공원 단체관광 (2차 모집)
■일 시: 1982년 9월14일~9월21일(7박8일)
■방문일정: 재스파 공원 2박 • 벤프공원 2박
캠룹스 1박 • 벤쿠버/빅토리아시 2박
■요 금: $650
■포함된사항: ● 왕복항공료 ● 숙박비(4인1조) ● 관광버스 ● 안내자
■신청마감: 1982년 8월25일까지 ● 예약금 $100첨부
■기 타: ♤취소할 경우 예약금은 반환치 않음.
♤요금은 예고없이 변동될 경우도 있음.
♤한국인 안내자가 출발서부터 귀환까지 책임안내함.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창범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준석
(R) (416)633 7892 (David Cha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港灣·철도건설등 參與

어제 韓-세네갈 頂上회담

19億弗 경제開發계획 지원

어획물 加工공장 民間합작

【다카르=尹國炳특파원】全斗煥대통령은 25일하오6시30분(한국시간) 대통령궁에서 아프리카 마지막순방국인 세네갈의 디우프대통령과 韓·세네갈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문제, 개발도상국간의 협의경력과 조직화문제, 反식민주의 路線의 공동추구문제등 양국간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광범위하게협의했다. 全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후 이날 저녁 디우프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했으며 26일 하오에는 2泊3일간의 세네갈 방문을결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뒤 세네갈을 출발, 아프리카 4개국巡訪을 모두 끝낸다.

全대통령, 세네갈出發… 阿洲순방 끝내

이날 단독정상회담에서 양국대통령은 특히 두나라간의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문제와관련, ▲산업기술 人力의 훈련▲의사파견및 전문가 훈련양성등 기술협력확대 방안 ▲투자여건의 개선▲漁獲物加工공장등 민간기업간의 합작권장▲다카르 국제박람회에서 한국민간기업 참가및 다카르 자유수출 工團지역에대한 한국업체의진출문제등 양국간의 무역확대방안을 집중협의했다.

두나라 정상은 또 합작및기술人力훈련등 건설업 육성문제·수자원개발·灌漑·상수도·도로·港灣·철도건설에의 참여문제등 세네갈의 사회간접시설 확충에의 협력문제와 모든분야에 걸친 양국간의 상호인사교류·스포츠및 문화교류증진방안등 다방면에 걸친 실질협력방안을 논의했다.

全대통령과 디우프대통령은 이밖에 총투자규모 19억달러에 달하는 세네갈의 제6차경제개발계획과 1억달러규모의 다카르상수도複線化건설공사의 참여문제, 對세네갈철도차량수출, 중소기업및 합작투자 그리고 투자보장및 2重課稅방지협정체결문제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알려졌다.

두나라원수는 이날 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양국 관계閣僚끼리 계속 협의토록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 全대통령은 양국이 修交이래 세네갈정부가 전통적인 우호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문제에 관한 우리정부의입장을 국제사회에서 적극지지해준데 대해 謝意를표명하고 지난10년간 두나라사이의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통상및 경제협력관계가 날로 증대되고있는데 대해 만족을표명했다.

全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괴의 무력통일정책추구와 이에따른 대폭적인 군비증강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高潮돼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북괴가 유엔과 비동맹회의등 국제무대에서 민족自決의 원칙을 무시,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민족의 긍지를 훼손하고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디우프 대통령은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다짐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金竣成부총리, 李範錫외무, 金東輝상공장관등 우리측 隨行閣僚들과 세네갈측 관계각료들은 확대각료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구체적인 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全斗煥대통령이 다카르요프공항귀빈실에서 出迎나온 디우프 세네갈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기자단=聯】

兩國은돈독한同伴者 도착聲明

【다카르】가봉공식방문을 마친全斗煥대통령내외는 24일 하오3시(한국시간24일자정) 아프리카 마지막 巡訪國인 세네갈의 다카르요프 국제공항에 도착, 디우프 대통령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이날 상오 가봉을 떠나 4시간40분간의 비행끝에 세네갈에 안착한全대통령은 공항에서 디우프대통령의 소개로 하바브·티암수상등 迎接人士들을 소개받고 21발의예포가 울려퍼지는가운데 의장대를 사열, 디우프대통령과 공항귀빈실에서 잠시 환담을나누었다.

全대통령은 이날 도착성명을 통해 『일찌기 셍고르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데이어 이번에 본인이 귀국을 방문하게되어 이제 우리 양국은 『거리는 머나 마음은 가까운 돈독한 동반자로서 더욱 발전돼 나갈것』이라고 말하고 『본인은 세네갈 체류기간동안 디우프대통령과 정부인사들과의 회담을통해 정치 경제 문화등 각방면에서 기존의 同伴者的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修正 84·85년 엇갈려

日정부、「통일見解」 오늘 발표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25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自民黨의 미쓰즈까(三塚博) 교과서문제 소위원장과 모리(森喜朗) 前문교부회장을 맞아 귀국보고를 듣고 외교문제로 발전된 교과서문제를 수습하기위한 정부의 통일견해 최종마무리작업에 들어갔다.

교과서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는 26일 하오 미야자와(宮澤喜一) 관방장관의 담화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과 중공당국에 외교루트를 통해 이 수습방안을 전달, 양해를 구할 방침이다.

이 수습방안의 내용은 韓日공동코뮈니케와 日·中共공동성명에서 밝힌 과거의전쟁에대한 책임과반성에 입각, 교과서記述이 적절한것이 되도록 수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수정시기에 관해서는 ①3년주기의 검정을 1~2년 앞당겨 실시하며② 이미 검정이 끝난 日本史 또는 사회교과서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한국과 중공등 인근국가와의 우호관계를 강조, 한국과 중공이 주장하는 왜곡부분을 행정지도로 설명할 계획이다.

검정시기문제는 외무성이 3년주기의 교과서검정 제도를 2년앞당겨 84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대해 재수정할 것을 주장하고있는반면 문부성은 1년앞당겨 85년부터시행할것을 주장, 서로 맞서고 있다.

스즈끼(鈴木善幸)수상은 이날 교과서문제를 수습하기위한 일본정부의 통일견해를 25일과 26일 아침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문제의 초점인 왜곡검정교과서의 기술문제는 한국과 중공이 주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 韓·日·中共간의 공동성명에서 밝혔던 정신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또 일본정부의 통일견해에는 검정교과서의 재수정문제에 관해 교과서의 몇페이지에있는 무엇을 어떻게 고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을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부성측은 교과서문제를 수습키위한 일본정부의 통일견해가 외무성의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에 반발, 오가와(小川平二)문부상, 미쓰미(三角)사무차관등이 곧 사의를 표명하게 될 것이라고 25일 문부성 소식통이 밝혔다.

오가와문부상은 24일 하오 늦게 스즈끼수상과 단독으로 면담, 교과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방안을 문부성에 맡겨줄것을 요청했다.

오가와문부상은 스즈끼수상과 면담을끝낸뒤 기자들에게 『교과서검정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외교적인 문제를감안, 지킬수없는 약속을하는 것은 교과서문제해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교과서의 검정제도를 1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나 그이상 앞당기는 것은 검정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日의원、安重根의사동상 참배
◇교과서 왜곡문제로 訪韓중인 日本 自民黨의 미쓰즈까, 모리두의원이 安重根의사 동상앞에 깊숙이 머리숙여 참배하고있다。

"修正문제 조속解決 스즈끼에 建議했다"

訪韓 日의원 밝혀

【東京25日=宋孝彬특파원】교과서문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민당의 미쓰즈까(三塚博)교과서문제소위원장은 25일 하오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 스노베(須之部)외무차관, 미쓰미(三角)문부성사무차관과 합석한 자리에서 귀국보고를 한뒤 기자회견을 통해 『교과서문제는 수정의사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것을 스즈끼수상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미쓰즈까위원장은 『교과서문제를 수습하기위한 일본정부의 「통일견해」가 26일중으로는 마무리돼 발표될예정이며 자민당의 교과서문제소위원장으로 3가지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으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미쓰즈까위원장은 한국을 방문, 왜곡교과서문제가 정치·경제문제를 넘어 한국민의 민족정신과 자부심에관련된 중대문제라는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했으며 조속히 한국민이 납득할 수있는 동시에 일본교과서 검정제도가 허물어지지않는 수습방안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PLO 承認준비중"

튀니지首相밝혀 兩側 이미文書교환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24日AP=聯】미국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승인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모하메드·브랄리 튀니지 수상이 24일 말했다.

브랄리수상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간 알·야마마誌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과 PLO간에 이미 튀니지정부를 통해서 문서들이 교환됐다고 밝히고 더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그는 또 자신이 금년초 워싱턴방문중 개인자격으로 미국과 PLO간의 중재역할을 수행했었다고 밝히면서 『튀니지는 항상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지지해 왔으나 다른 아랍 국가들과는달리 PLO의 후견인으로는 자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비브·부르기바 튀니지 대통령은 23일 前영국위임통치령이었던 팔레스타인 영토를 유대국가와 아랍 국가로 분할하기로한 47년도 유엔결의를 汎아랍圈이 받아들일것을 거듭촉구했다.

지난79년 아랍연맹본부를 유치 아랍권에서의 위치를 다진 튀니지는 최근 아라파트 PLO의장이 튀니스에 새로운 정치기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져 아랍권에서의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

北傀、짐바브웨 再派兵

【하라레(짐바브웨)24日AP=聯】북한은 앞서 짐바브웨에 제공한 탱크와 야포조작을 위해 짐바브웨군제5여단에 실시해 온 훈련을 마무리 짓기위해 내달 군사고문단을 짐바브웨에 재파견한다고 짐바브웨의 고위군사소식통들이 24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지난달 돌아갔던 약1백30명의 북한고문관중 31명이 오는 9월 짐바브웨로 재파견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사고문관들은 작년8월 처음으로 짐바브웨에 파견돼 「고무라훈디」(旋風)란 별명이 붙은 짐바브웨육군제5여단이 올 6월 짐바브웨중서부의 책임구역을 장악하기위해 중부 그웨루시로 이동할때까지 이여단을 짐바브웨동부 고지대에서 극비리에 훈련시켜 왔다.

이여단은 로버트·무가베 수상에게 충성하는前게릴라들로 주로 편성돼 있다.

上海주재 總領事館 英、16년만에 再開設

【北京25日路透=聯】영국은 지난66년중공에문화혁명이시작된과 동시에 폐쇄했던 上海주재 총영사관을 16년만에 재개설할 계획이라고 北京주재 영국대사관이 25일 밝혔다. 영국대사관은 총영사관 재개설에관해 이미 중공과 영국정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陸軍부대 渡河훈련 金총리·尹국방參觀

「82 乙支포커스·렌즈」훈련에 참가한 육군부대의 도하훈련이 25일 하오 한강하류○○지역에서 실시됐다.

이날 육군 9287부대장병들은 2m가 넘는 간만차이, 초속1.9m의 역류를극복하고 7백m이상의 강폭을 가로질러 부교를 가설했다.

이날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尹誠敏국방장관을 대동하고 黃永時육군참모총장의 안내로 훈련을 참관했으며 이자리에서 『최근 북괴의 잦은 도발위협에 대비, 경각심을 높이고 수도권지역에대한 기습침투에도 즉각 대처할수있는 군·관·민의 총화단결태세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社会漫評

이번엔 어떤 재주를 부리려나…

민족史觀정립 特委 위원장 李鍾贊총무

民正黨은 25일 民族史觀의 올바른정립과 民族正氣의 계승발전을위해 필요한 제반사업및 활동을 전개하는것을 목적으로한 「民族史觀정립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족시켰다. 黨憲상의 특별위원회로 발족될 이기구의위원장에는 李鍾贊총무가 임명됐으며 20인 이내의 위원들은 추후선정키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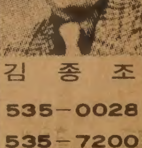
地平線

大富由命, 小富由勤. 작은재산은 근면으로 얻지만 큰재산은 운이 따라야한다는중국 속담이다. 엊그제발표된 81년 所得랭킹을보면 26억원을벌어 세금13억원을 낸 大韓航空 趙重勳사장이 계속 1위를차지했고 2위엔 이름이 그리 알려져있지않은 연탄·광업회사사장 李義幸씨가 올라있다. 한국의 甲富로 누구나 꼽는 鄭周永씨는 5위, 李秉喆씨는 15위로 되어있다.▼우리나라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해서버는 평생소득은 평균 1억7천만원이라는 西江大의 한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엄청난 소득임에틀림없다. 가령 평생소득 1억7천만원을 30년으로 나누면 약5백66만원이니 실수입 13억원은 대충 2백명분의 수입에해당한다. 經營學의 碩學으로 알려진P·F·드래커는 미국내 기업경영자의 보수최고액이 일반사원 최저금액의 15배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밝히면서 세금포함 30~50만달러 수준이라고 말한일이있다.▼부연하여 대기업은25배로 세금포함 50만 달러라 했다. 그리고 사장이 50만달러를받는 것은 기업내부의 관리계층이 복잡하기때문에 톱경영자를 그만큼 우대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미국에서 1백50만달러 이상을 받는 경영자는 23명, 유럽은 80만달러가 최고급이다. 한해수입이 年俸만은 아니므로 비교하는것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톱경영진과의 소득격차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큰점만은 대강 알수 있다.▼얼마전에 각국의 직업별 소득이 소개된 일이 있다. 레이건의 연봉은 20만달러, 西獨의 슈미트首相은 12만6천달러, 스즈끼 일본수상은 9만2천6백90달러, 미국의 장관급은 7만달러, 일본은 6만7천5백달러, 국회의원은 미국이 6만6백달러, 영국 2만6천9백달러였다. 미국의 대학교수 연봉은 4만3천~5만달러고 의사의 평균年收는 6만9천~7만5천달러다. 영국은 최저 4만2천4백달러며 우리나라 의료업에선 최고가 1억6천만원이니 편면적 비교여서 별 도움은 안될지 모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한데 이것은모두남의얘기에불과하다.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아무리 金錢感覺이뛰어나도 월급이외엔 節約밖에 蓄財의 수단이 없다. 開城商人이 때마침 TV로 放映되고 있기도 하지만 부지런히 살면서 계산을 밝게하고 한푼이라도 아끼며 허욕을 안부리는 것만이 小富의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할것같다.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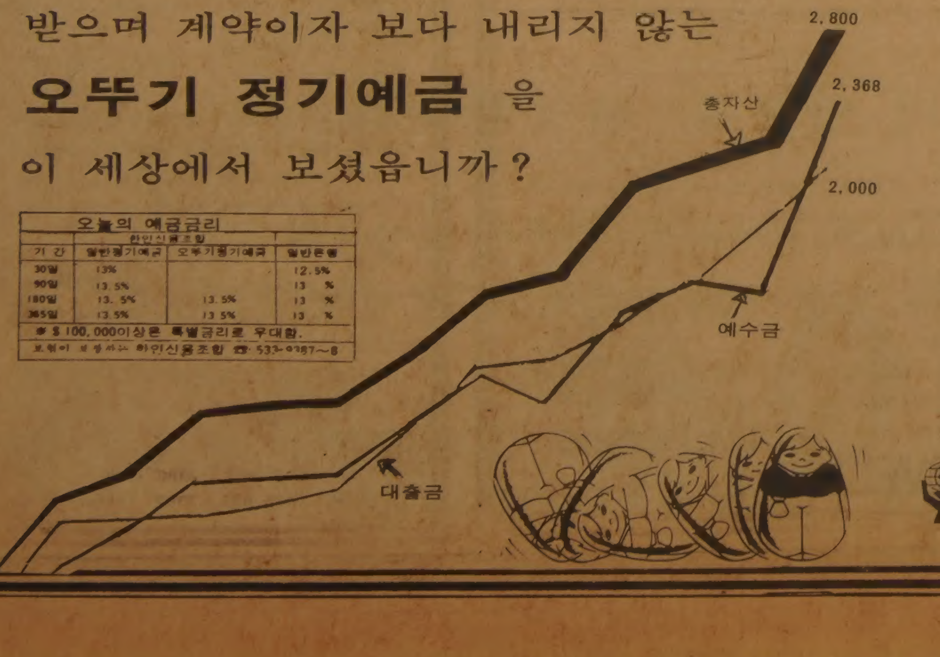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오뚜기 정기예금

금리변동에 따라 이자를 자동적으로 다달이 올려 받으며 계약이자 보다 내리지 않는 **오뚜기 정기예금** 을 이 세상에서 보셨읍니까?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		12.5%
90일	13.5%		13 %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1. 명칭 : 오뚜기 정기예금
(VARIABLE TERM DEPOSIT)
2. 특징 과 혜택 : ①은행 우대금리(BANK PRIME RATE)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를 올려서 받게됨.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당시의 이자율 보다 내려가지 않음.
②이자는 매월말에 정기적으로 받음.
③기한은 6개월, 1년 두가지.
④중도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보통예금 금리보장
3. 권장대상 : ①수시로 오르는 금리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고자 하시는분
②교회·단체의 기금, 장기성 예금등
③특수목적을 위하여 이자의 별도적립을 원하시는 분.
(모국방문·성지순례등)
④목돈의 예치로써 월정 용돈, 생계비를 얻고자 하시는 분.
4. 기타 : 어느 금융기관 보다 싼 이자로 대부하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CAR LOAN, MORTGAGE LOAN도 곧 시작합니다.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W. TORONTO M6G 1L1 ☎: 533-9387, 9388.

恨맺힌 「自治협상」은 不滅의 「戰爭불씨」로

PLO의 내일 <下>

「獨立주장」 武力으로 抹殺

「귀향의 꿈」은 아득하기만

◇울분의 V사인 한 팔레스타인여인이 24일 베이루트에서 北예멘을 향해 출발하는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을 전송하며 승리의 V사인을 해보이고 있다. 【베이루트24日AP聯合】

아랍제국에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중에서 산유부국 쿠웨이트에 정착한 사람들의 생활은 윤택하고 축복으로충만해있다.

일자리가 많은데다 학교병원、전화요금이 무료다. 이나라의사10명중 4명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유능한 기술자 공무원으로서 활약하고 있고 쿠웨이트정부는 이들의 사회적공헌을 조금도 차별없이 인정하고 대접한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사는 27만9천명의 난민 대부분이 풍요한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쿠웨이트를 「지옥」、팔레스타인 옛 고향을 「녹색의 천국」이라 부르고 있다.

향수에 견디다못한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서 그들은 「바람이 실어다 주는 팔레스타인 흙 냄새라도 맡을 수 있을것 같아」고향땅 가까운 요르단에 이주할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西베이루트에서 PLO게릴라를 일단 철수시킨후、그다음 난제를 쫓자는 미국의 방침대로라면 이제 이들의 恨맺힌 팔레스타인 자치협상을 진행할 순서다.

이미 西베이루트의 포위망속에서 PLO의장 아라파트가 이스라엘의생존권을 인정했기때문에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머리를맞대고 마주앉을기반은 마련됐었다.

PLO는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요르단강 西岸」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민족의 독립정부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PLO가 요구하는 독립정부란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맞섰다. 대신 이곳에「팔레스타인 공동체」즉 이스라엘국가의 틀안에서 제한된 自治만을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넓지도 않은 영토안에 또 다른 국가가 서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해올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고있다.

사실 이러한 불신과 의혹 그리고 자신감의 결핍은 48년 이스라엘 건국후 중동에 언제나 유혈 전쟁의 악순환을 몰고온 주요 요인이 되고있다.

PLO가 팔레스타인 독립정부의 영토로 삼고자 하는 요르단강 西岸과 가자지구에 아직 1백50만명가량의 팔레스타인사람들이 살고있다. 이스라엘정부는 PLO의 독립정부수립요구를 결코 허락할수 없음을 행동으로 과시라도하듯 이곳에 유태인정착촌을 크게 늘려 팔레스타인人의 생활터전을 잠식해 들어가고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민족출신 市長들을 모조리 해임,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체해 놓은지는 오래다.

이렇게 「완전자치」「부분자치」의 삼각으로갈린 입장을 절충、타결짓는일을 미국이 떠맡게 돼있으나 그 미국은 지금 레바논에 새롭게 조성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戰雲을 해소하기에도 숨이가쁘다.

베카계곡에 주둔한 3만의 시리아군과 레바논남쪽을 점령한 6만의 이스라엘군은 어느 쪽도 선뜻 철수할 움직임이 없다.

비록 강력한 중앙정부가 서야 한다고 똑같은 구호를 외치고는 있으나 그것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부여야 한다는 상반된 속셈을 감추고 있다.

美、妙策없고 새戰雲에 苦悶

협상 失敗땐 中東-美·蘇-세계戰 위험

이집트가 레바논의 이스라엘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키고 캠프데이비드 협정조항에 의거、팔레스타인 자치협상을 조속히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생각은 엉뚱한곳에 가있다.

79년 이집트와 맺은 캠프데이비드평화협정과 같이 레바논 요르단등 국경을 맞댄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체결、생존권을 인정받고 국경을안정시켜주는것을 우선적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이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아지면 PLO의 입장과 주장은 그만큼 약해질수 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자치협상이 시작되기에앞서 바로 그같은 사전포석을 우선 끝내두려한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수 있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향의 꿈은 그래서 아득한 얘기가 아닐수 없다.

자치협상이 막상 시작된다해도 협상의 조속한 결말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오니즘의 창시자 헤르츨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는 나일江에서 유프라테스까지는 돼야 생존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썼다. 지금의 지도자 등에게까지 國父 헤를의 사고는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협상이 깨지면 PLO가선택할길이란 무력투쟁뿐이다. 이스라엘과 PLO의 대결은 이스라엘과 아랍의 대결로、미국과 소련의 대결로 확대、결국 또 다른 세계대전을 불러올 위험을 충분히 안고있다.

PLO 지도부를 분산、이스라엘은 분할지배를 꾀했으나 PLO 지도부는 여전히 영토없는 정부를 유지해나갈것같다.

다마스커스에는 팔레스타인 민족평의회、집행위원회가 PLO의 西베이루트 패배에도 불구、고스란히 남아있다. 더군다나 PLO산하 파벌8개중 아라파트의 알파타그룹이 3백1석 의회의석중 5분의3、정책위원 15명중 10명을 차지하고 있어 분산철수후에도 아라파트의 지도노선에 별동요가 없을것으로보인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십자군을 2백년걸쳐 몰아냈던 중세기와는 다르다. 중동은 핵무기시대의 문턱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거기에 미소의 최신무기로 겨루는 싸움은 자타 공멸을 불러올뿐이다.

팔레스타인 난민의 문제는 당연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성질의 일이다. 그리고 그들을 고향에보내주는 것이 正義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이것을 힘으로 판가름 내려는 오류를 반복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崔相鎬기자】

남의 말

메아리

여대생 하나가 버스에 놓고내린 재미교포의 돈뭉치를 주워 주인을 찾아주고는 사례를 받는 대신 7세된 아이를 가리키며 「저 아이에게 우리말을 가르치세요」라고 부탁했다는 보도가 8월25일자 한국일보 사회면에 났다.

여대생으로서는 미국말밖에 할줄 모르는 어린이가 왜나 안타깝고 불쌍했던가보다. 이런 어린이를 볼때마다 누구나 하고싶은 말이기는 하지만 한 善行者의 言辭라니 다시 돋뵌다.

외국을 여행하다보면 현지에 사는 친지들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경우가 더러 생긴다. 이럴때 그 집 어린이들이 우리말을 전혀 못하는것을 보게되면 슬퍼지고 불쾌해진다. 어린이보다도 부모들의 얼굴이 다시 쳐다보인다. 부모의 교양이 그렇게 천박해보일수가 없다. 아무리 성찬을 차려놓아도 먹을 맛이 안난다.

이런 부모일수록 대개는 자식 자랑을 하게되어있다. 가령 미국같으면 자기아들이 미국 어린이들을 물리치고 반에서 영어점수가 1등이었느니하고 신나한다. 허풍을 떠는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느나라에 가나 그나라말의 문법시험 점수에서는 1、2등을 하는수가 많다. 이것이 자랑이 아닐것도 없다. 그러나 그 어린이가 우리말을 한마디도 못할때는 조금도 자랑이 안된다. 우리말 모르기로야 미국어린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미국 어린이들이 미국말을 줄줄하는것은 왜 자랑이 안되는가.

부모들이 자식에게 우리말을 가르쳐주지 않는것은 그나라에 얼른 적응시키기위한 苦肉策같아보이지만,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반드시 그런것만이 아니다. 부모들의 사용때문일때가 많다. 나이든 사람들은 밖에나가 영어를 배울 엄두가 나지않으니까 집안에서 자식들에게 우리말을 쓰지않고 영어만 쓰게하여 그 자식들한테서 배운다. 자식들이 부모의 스승이다. 그러는동안 자식들은 외국인이 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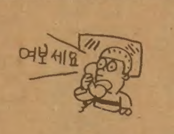
미국에 가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걸었을때 저쪽에서 「헬로우」하고 받는경우를 흔히 당한다. 이쪽에서 「여보세요」해야 그때 비로소 한국말로 대답한다. 「헬로우」발음 하나만 가지고는 미국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얼른 분간이 안되니까 처음에는 전화가 잘못 걸렸나하고 당황하게된다.

한국인의 집에서는 자기가 어느나라에 나가있건 수화기를들면 당연히「여보세요」라고해야옳다. 상대방이미국인이면 그때 「헬로우」해도 늦지않고 그것이 조금도 실례가 안된다. 한국인이 전화를 걸어올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여보세요」한마디에 「나는한국인」이라는 의지가 다들어있다. 한국인한테 「헬로우」했을때의 실례는 설령 무의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해보면 생각보다는 훨씬 불쾌하다. 우리말을 할줄 모르는 한국 어린이를 볼때와 마찬가지의 저항감이 느껴진다.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은 조국의 얼 어쩌고 하기 이전에 常識人의 良識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살러나갈때 이삿짐속에 우리말사전 한권을 넣고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모르겠다. 외국의 친지집에 초대되어가서 書架에서 우리말사전을 발견했을때의 환희란 어느국제경기장에서 태극기가 올라가는것을 볼때의 감격에 절대로 못지않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외국에 약하다. 外製취미도 그렇거니와 외국인에게만 터없이 친절한것도 그렇다. 事大가 아니냐고들한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것은 이事大를 넘어서기 위해서다. 외국에 강해지기위해 외국어를 배운다. 아침마다 TV에서 쏟아져나오는 외국어강좌들은 自强術이다. 결국 남의나라말을 배우는것은 우리나라말을 튼튼하게 하기위해서라고 할수있다.

외국어는 어디까지나 한가지 常識이다. 國語가 常識에 그칠수없다. 어찌 國語를 한낱 常識과 바꾸겠는가.



金聖佑
<編輯委員>

◇메두사같은 헤어드라이어 서독의 한 여인이 머리털이 뱀으로 되었다는 메두사모습 으로 머리를 말리고있다. 이헤어드라이어는 고무로된 시간절약형 제품이다. 【함부르크=UPI】

海外토픽

대처首相 가끔울어

★포클랜드戰때 외로와

대처영국수상은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전쟁을 수행하는동안 외로운 나머지 가끔울기도 했으며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었다고 여성주간지 워먼즈·오운과의 회견에서 실토.

대처수상은 특히 이 전쟁과정에서 수상이란직책이 얼마나 고독한가를 절감했으며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을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않음을 깨달았다고. 【런던=UPI】

트뤼도首相 도망신

★조기辭任강요 모금운동

캐나다의 경제위기 심화로 이미 썩은 토마토세례를 받는등 궁지에 몰리고 있는 피에르·트뤼도수상에게 사임을 강요하는 새로운 형태의 모욕이 가해지고 있다.

트뤼도수상의 비판자들은 그가 조기사임할 경우 그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에드먼튼=UPI】

경찰서장방에 强盜

★武裝한4人組、몽땅털어가

인도네시아의 한 경찰서장 방갈로에 강도가 들어 현금과 보석등 귀중품을 몽땅 털어갔다.

메르데카지의 보도에 따르면 긴칼로 무장한 4명의 도둑들이 남부자카르타의 키불란에 있는 경찰의 고위간부 별장을 새벽에 침입, 때마침 주말을 즐기던 서장과 가족들을 위협,현금과 부인의 보석뿐만 아니라 텔리비전수상기, 비디오등을 털어갔다는 것. 【자카르타=AFP】

도착후 비많이 내려 多幸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세네갈

비오면吉兆라는데

○…세네갈방문 첫날인 24일밤 (현지시간) 디우프 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내외를위해 베푼 공식리셉션엔 세네갈의 티암수상내외를 비롯한 3府要人과 경제·문화·종교·학계등사회각계대표 그리고 세네갈주재 외교사절및 우리측수행원등 3백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디우프대통령과 榮譽수행부인 티암수상 부인이 全대통령 거실에 도착、全대통령내외를 안내하여 1층 리셉션장 입구 리셉션라인에 서자 티암수상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사람씩 입장하면서 인사를 했다.

검은예복과현란한민속의상차림의 남녀 참석자들이 「세네갈방문을 환영합니다」「먼길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읍니다」고 인사할때마다 全대통령과 염부인 李順子여사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악수를했다.

20분동안에 걸쳐 참석자들의 접견이 끝나자 양국원수와 염부인 李여사는별실로 안내되어 환담을 나누었다.

정면 소파에 양국원수가 나란히앉고 양옆으로는 염부인 李여사 티암수상 그리고 티암수상부인 金埈成부총리 張明賣대사 내외가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밖에 비가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비가 오면 吉兆라는데 세네갈을 위해 다행」이라고 말을 전네자 티암수상부인은 「각하가 비를 몰고 왔다」고 인사.

全대통령은 「비가 안올때 왔으면 세네갈국민들에게 미안할뻔 했는데 비가 오니 다행」이라면서 「인간의 힘이 아무리 크고 과학이 제아무리 발달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연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만큼 비가 올때는 오고 올필요가 없을 때는 오지 않아야 된다」고 말했다.

티암수상부인은 「세네갈국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와야하는데 각하가 오신후에 비가 많이 내려 다행」이라고 해 全대통령으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全대통령은『피곤하시지 않으냐』는 디우프 대통령의 물음에 『딴사람은 아프리카에 오면 피곤하다고하는데 나는 피곤한줄 모르겠다』면서 『특히 비행기에서 다카르시가를 내려다보니 무척 깨끗해 고향에 찾아온것같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안정이되는것 같았고 오후에 몇시간 쉬는동안 피로가 말끔히 풀렸다』고 인사.

全대통령은 여성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세네갈에는 남녀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고 여성각료등여성지도자들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디우프대통령이『사회복지담당장관과 수상실직속 여성문제담당장관등 2명의 여성각료가 있고 의회에도 10%에 달하는 10여명의 여성의원이 있다』고 소개하자 全대통령은『한국에도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각료가 바로 여성』이라고 말하기도.

全대통령이 디우프대통령에게 『선거를 하려면 여성표를 많이 모아야 하니 여성지도자를 많이 확보해야 할것』이라고하자 디우프대통령은『여성표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자랑해서 웃음이 일었다.

한편 염부인 李順子여사는 디우프대통령과 자녀교육、여성의 사회활동 등에 관해 담소했다.

디우프대통령이 『염부인께서는 3男1女를 두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한달전에 결혼한 우리집 큰딸이 지금 사위와 함께 여기와 있는데 워낙수줍어해서 숨어있는 모양』이라고 말하자 염부인은『우리딸도 사진찍히는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디우프대통령은 『최근세네갈에는 여성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있는데 여성운동 標語가「한여성이금 1g이라면서 1g의 금을 모으는 정신으로 여성들이 금이나 돈을 모아 세네갈의 급선무중의 하나인 수자원개발에 직접 투자하자는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음료와 과자를 들며 환담이 한참 무르익어갈무렵 한달전에 결혼했다는 디우프대통령의 큰 영애와 사위가 들어와 全대통령내외에게 인사를 드렸다.

당초 15분간으로 예정됐던 환담이 길어지자 세네갈의 의전장이 『일어나실때가 됐다』고 알려왔지만 디우프대통령이 담소를계속、40분간이 됐다.

양국 원수내외는 아쉬움을 간직한채 자리에서 일어나민속악기인「꼬라」로감미로운 선율을연주해 환담분위기를 돋운 2명의 악사앞으로 다가가 「수고했다」며 격려했다.

양국 원수와 염부인은다시 리셉션장으로나가 참석자들과 악수를나눈뒤퇴장.

◇全斗煥 대통령내외분이 24일밤 大統領宮에서 베풀어진 디우프 大統領主催 公式리셉션에 참석、別室에서 民俗音樂을 연주하고있는 타악기 奏者들을 致賀하고있다. 【다카르(세네갈) 24日電送=聯合】

◇全斗煥 대통령이 다카르요프 공항에서 出迎人士들과악수를 나누고있다. 【다카르(세네갈) 24日電送=聯合】

리셉션大盛況…300여 참석

15분 예정환담이 40분동안 계속

沿道곳곳 肖像畫

○…全斗煥 대통령내외는 24일 하오3시 (한국시간 25일0시) 다카르요프 세네갈 국제공항에도착、디우프대통령과 첫 相面의악수를 나눴다.

全대통령은디우프대통령의 소개로 하비브·지앙수상등 출영나온 세네갈의각료들과 악수로 인사를 나눈뒤 디우프대통령과 나란히 군기병 앞으로 걸어갔다.

이때 21발의 예포가울려 퍼졌으며 곧이어 양국국가가 연주됐다.

양국원수는 도보로 3軍의장대를 차례로 사열한뒤 출영나온 세네갈관계자와 약15명의 마라브 회교지도자들、우리공관직원、軍지도자順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어 양국원수는 염부인 李順子여사와 하비브 수상내외 金埈成부총리와 함께 공항국빈실에서 차를 마시며 약20분동안환담하고 공항을떠나 영빈관으로 향했다. 【다카르=尹國炳특파원】

환 영

— 전대통령 내외분의 캐나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

캐나다 원자력공사는 한국전력(KEPCO)과 더불어 한국의 월성군에
원자력발전소 3호를 건설중에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L'Énergie Atomique du Canada, Limitée

시리아, 陸路통과 拒否

PLO撤收 새難關에

"레바논民兵隊의 攻擊우려"理由

海上철수작업은 順調

【베이루트·예루살렘24日AFP=聯合】 팔레스타인게릴라들의 레바논철수작업은 24일 해상철수 제4진이 베이루트를 떠남으로써 순조롭게 진행되는듯 했으나 25일부터 시작되기로 예정된 시리아로의 육상철수가 취소됨으로써 돌연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텔아비브의 이스라엘군사령부는 24일 『시리아가 아무런 설명없이 서베이루트, 다마스커스간 육로를 통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철수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는데 팔레스타인 철수작업중 가장 어려운 단계로 간주되었던 25일부터의 육상철수가 연기됨으로써 하비브 美중동특사가 조심스럽게 마련한 철수계획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같은 발표가 나온직후 다마스커스의 공식소식통들은 시리아가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육상철수를 취소한 일이없다고 부인하여 혼선을 빚고있다.

이스라엘 군사령부는 25일 육상철수취소가 시리아의 결정이라고만 말했으나 이스라엘 군방송은 레바논의 기독교 팔랑헤黨 민병대들이 베이루트, 다마스커스 고속도로를 통해 수송될 팔레스타인 게릴라와 시리아 군인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이같은 육상철수계획이 취소된것으로 추측했다.

25일 서베이루트를 떠날예정이었던 팔레스타인게릴라와 시리아군의 숫자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약 2천명~3천명이 40대의 버스에 분승, 다마스커스로 수송될 예정이었다.

이스라엘군사령부발표는 그러나 철수계획취소가 육상철수에만 국한된것이며 해상철수는 25일 정오(한국시간 하오7시)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한편 8백명의 美해병대가 25일상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베이루트철수를 감시하기위한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베이루트항에 상륙했다.

美해병대는 이날상오 5시(한국시간정오) 베이루트항에 도착, 상륙하기 시작했으며 PLO 철수를 골자로한 레바논평화 계획을 타결시킨 필립·하비브美중동평화특사의 환영을받았다.

◇철수監視 프랑스평화유지군과 레바논병사들이 24일 팔레스타인 戰士들의 철수가 계속되고있는 베이루트항 부근의 한 검문소에서 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베이루트24日UPI電送=聯合】

共産黨집회장 습격

아프간叛軍 수백명殺傷·장갑차파괴

【뉴델리24日UPI=聯合】 아프가니스탄회교저항군은 지난 19일 카불서북15㎞의 파그만에서열린 대규모 공산당집회장을 공격, 『수백명의 민간인과 경비병』을 살상했다고 뉴델리의 서방외교관들이 24일 밝혔다.

이 외교관들은 정통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저항군이 파그만공산당에서 약 1천명의 『당재건자원봉사자들』도 참석한가운데 열린 집회에 잠입해있다가 당지도자들의 연설이 개시되자 총탄을 난사했다고 전했다.

저항군은 또 당원들을 실어나르던 5대의 버스와 집회장소를 경비중이던 병력수송용장갑차 여러대를 파괴한것으로 알려졌다.

바브라크·카르말 아프간 공산정권은 전부가 파그만을 완전 장악하고 있음을 과시하기위해 각부처의 하급공무원들을 동원하여 파그만에서 당집회를 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웬사에 平和賞을 伊노동연합서 요청

【로마25日AP=聯合】 이탈리아 3대노동조합중의 하나인 이탈리아노동연합(UIL)은 24일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에 대해 82년도 노벨평화상을 현재 연금상태에있는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에게수여할것을요청했다.

사회당계노조인UIL의 조르지오·벤베누토사무총장은 이날 자콥·스배드롭 노르웨이 노벨평화상위원회사무국장에게 보낸 한서한을통해 그같이 요청했다.

노벨化學賞 수상 美무어教授 자살

【뉴욕24日聯合=聯合】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美록펠러대학교수 스탠포드·무어(68)박사가 23일 그의 맨해턴 아파트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자살한것같다고 말했다.

무어박사는 거의 1년동안이나 하반신에 마비증세가일어나는 근육위축성 측생경화증과 신경성질환인 루게리그씨병으로 고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故무어박사는 지난72년 효소와 단백질의 구조해명연구로 록펠러대학의 동료교수인 윌리엄·스타인박사와함께 노벨화학상을 공동수상했다.

中共·日·홍콩巡訪 대처英首相 내달에

【런던24日聯合=聯合】 대처영국수상은 오는 9월16일부터29일까지 중공과 일본·홍콩을 공식방문한다고 영국정부가 24일 발표했다.

한국일보 詩壇

洛山寺海水觀音像

석 성 일

1

돋는 해 맞아옵고
지는달 보내옵고
쉴줄 모르는 세월 멜고
한장하늘 이고 서서
무리고 젊은 허리를
잠재우고 계시다.

2

더러는 햇살되시어
더러는 그늘되시어
오는 것은 오게 하며
가는 것은 가게 하며
어느날 덜 부른 노래
다 부르게 주시다.

3

혼자선 못 누울 정
안고서 오는 자에겐
원 없는 웃음으로
원 없는 침묵으로
때로는 가위질 하며
살아가라 하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의 食生活 이대로 좋은가

돼지고기 요리

部位따라 調理도 달라

어깨살 조림、방앗살은 튀김에 좋아

돼지고기는 부위에따라 요리종류가 조금씩 달라진다. 어깨살은 다진고기요리、조림에 좋고、등심은 튀김、구이、소금절이에 좋다. 돼지 등쪽의 방아살은 튀김에、삼겹살은 수프와 조림등에、그리고 뒷다리는 구이와 다진고기요리에 쓰인다. 고기부위에 따라 알맞는 조리법을 조화시키면 한결 맛을 낼수있고、싼값으로 고급의 단백질요리를 식탁에 올릴수있다. 또한 돼지고기 편육에 어울리는 양념은 대개 새우젓 국물에 마늘、파、깨소금을 넣은 양념장을 곁들이지만 된장에 갖은양념을 넣은 쌈장도 잘맞는다. 불고기 양념은 고추가루와 고추장을 넣으면 맛을 더한다. 돼지고기도갖가지야채와 두부、콩종과 섞어 요리하는것이좋고 사과와 토마토 케첩도 잘어울리는 식품이다.

돼지고기 요리법 몇가지를 소개한다.

제육감자쌈탕 ▲재료=제육3백g·감자1개·꽃이10개·진간장 3TS·설탕 3TS·참기름 1TS·정종 1TS·생강 저민것 10조각(TS는 큰술、tS는 작은 찻술) ▲만들기=제육은 불고기처럼 얇게 썰고 감자는 손가락 한마디 크기와 길이로 썰어 제육을 펴고 그 위에 감자를 넣고 제육으로 감싸서 꽃이로 꿰어 빠지지 않게 한다. 이 제육감자 쌈에 진간장 설탕 참기름 정종 생강을 넣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찬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조린다. 다 조려지면 꽃이를 빼낸다.

돼지고기말이 ▲재료=비계없는살코기1백50g、사과1개 ▲만들기=돼지고기를 넓적하게 다섯조각으로 썰어 소금 후추를 뿌려둔다. 사과는 속을 빼고 굵은 채로 썰어 준비해둔 돼지고기에 가지런히 놓고 김밥 말듯 말아둔다. 이것을 밀가루를 가볍게 묻히고 미리 풀어놓은 달걀을 입힌 다음 빵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겨낸다. 사과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한 것이 主食、간식、술안주에 모두 좋은 요리다.

케첩볶음 ▲재료=돼지고기 2백g、토마토·케첩、생강、마늘즙、간장、설탕、후추가루 ▲만들기=돼지고기는 굵게 썰어 생강즙과 마늘즙에 잰다. 토마토·케첩에간장、설탕、후추가루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이 양념장에 돼지고기를무쳐 3~4시간둔다. 세게달군남비에양념한 돼지고기를단번에볶아낸다.

돼지고기두부찜 ▲재료=돼지고기 2백g、마늘、파、후추、참기름、두부3모、깨소금、간장、콩기름、풋고추、붉은고추、생강즙、청주、육수 ▲만들기=돼지고기를 곱게다져서 갖은양념을 한다음 간이배도록 재어놓는다. 두부는 약1㎝이상되게 두껍게 저며서 소금을뿌려놓았다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가 노랗게 되도록 구워놓는다. 이 구워놓은 두부 가운데에 칼집을 내 돼지고기 양념한 것을 속에넣고 남비에 기름을넣어 다시한번지지면서 육수를반컵정도부어서 찜을한다. 풋고추 붉은고추를함께썰어넣는다.

제육자반 ▲재료=살코기3백g、삶는양념(생강5조각+소금1tS+후추가루4분의1tS+물3컵)、볶는양념(진간장2TS+파·마늘다진것3tS+참기름1TS+후추가루4분의1tS+맛소금약간+생강즙2tS+정종2tS등) ▲만들기=돼지고기를 찬물에 주물러 씻어 핏물을 뺀후 넉넉한 물에 삶는다. 이때 생강을 저며 넣고、삶는 양념을 넣어 끓인다. 젓가락으로 고기를 찔러 보아 쑥 들어가도록 익으면 꺼내서 식힌후 고기 결대로 가늘게 쭉쭉 찢어놓는다. 삶을때 시간이없으면 결대로 몇토막을 내서 삶으면 시간을 절약할수 있다. 가늘게 찢은 돼지고기를 볶는 양념을 넣고 볶는다. 색이 까맣게 윤기가오르도록 수분이 증발될때까지 잘 볶아낸다.

돼지고기김치 ▲재료=배추 50포기、살코기 돼지고기 3근、배추잎이나 무우청、생강즙、소금、후추등 ▲만들기=돼지고기 살코기를 잘게 썰어서 생강즙、조미료、후추、소금등을 넣어 살짝 볶는다. 이볶음을다른양념과 섞어 배추속에골고루넣고 맨위에 절인 무우청이나 배추잎으로 덮어 돌로 눌러놓는다. 2~3일이 지난뒤 소금물이나 젓국물을붓어 간을맞춘다음 식혀서 독에 붓는다. 찌개김치용은 배추5포기에 돼지고기 2근반정도를 양념과 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단지에 꽉꽉 눌러 담았다가 필요할때 적당한 양을 꺼내 끓여 먹는다.

돼지고기전골 ▲재료=돼지고기3백g、시금치、송이버섯、양파、배추잎、실파、가지등의 야채 ▲만들기=돼지고기를 불고기감으로 얇게 썰어 전골냄비 한쪽에 담고、시금치、양파、배추잎、송이버섯、실파등의 야채를 적당히 썰어 접시 한쪽에 놓는다. 배추잎은 미리 살짝 데쳐 두는 것이 좋다. 전골남비에 돼지고기와각종야채를담아익히면서 생강즙、설탕、정종、간장의 순서로간을맞추면서 끓인다.

콩비지찌개 ▲재료=풋콩 간것3컵、돼지고기뼈3백g、배추잎 삶은것2백g、새우젓국、파、마늘、생강즙、콩기름 ▲만들기=풋콩을 깨끗이씻어 믹서에 갈아놓는다. 돼지고기뼈는 잘게 썰어놓고、배추잎은 삶아놓는다. 돼지고기뼈가 잘 잠기게 물을붓고 끓인다. 여기에 배추잎을 콩기름에 볶아 넣고 콩간것을 위에얹어 새우젓국을 넣어 다시 끓여낸다. 다끓으면 양념간장을 곁들여낸다. 【高桂淑기자】

◇돼지고기 전골。

◇돼지고기 케첩볶음

首相꿈꾸는 「샤론」國防相

勝戰으로 「이스라엘人 복수심」 충족

일부선 "冷酷"비난… 實現은 未知數

이스라엘軍 탱크선발대가 『갈릴리평화작전』에 따라 처음으로 레바논영내로 진격했을때 일부 이스라엘인들은 이전쟁이『샤론의 영광을 위한 작전』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아리엘·샤론국방상(54)은 수상이되려는 야망을 품고 이번전쟁의 주역을 맡았다는 비판에 개의치않고 레바논전쟁을 시종일관 무섭게 수행해냈다.

그를 찬미하는 사람들에게는 샤론이 용감한 군인、군사적 천재로 보이나 비관자들에게는 개인적 야심을 품은 냉혹한 인간으로 비치고 있다.

◇샤론국방상

거대한 체구와 험상궂어진 눈동자 그리고 아이같이 친근한 인상을 주는 등의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샤론은 그의 외모와 행동때문에 『불도저』와 비유되고 있다.

비관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권위를 무시하는 그의 고집이 또한번 드러났다고 말한다.

많은 각료들은 샤론이 南部레바논의 제한전쟁을 제멋대로 확대시켰을뿐 아니라 전쟁을 계속하기위해 정부결정을 묵살하고 적의 사소한 휴전위반을 구실로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샤론은 지난50년대 청년시절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기습공격에 대항하는 기습공격으로 맞선다는 각오하에 비밀특공대를 조직했었다.

이같은 전략은 이스라엘軍에 공격정신을 스며들게했으며 아울러 이스라엘인들의 복수심을 충족시켰다.

그러나 샤론이 주도한 한기습공격에서 69명의 아랍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됨에따라 이스라엘 각에서는 이같은 보복공격에 대해 회의를 갖기시작했다.

특히 1956년 샤론은 시나이반도 작전에서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집트 전선을 공격하여 38명의 동료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재 고위관리가 된 당시의 동료들은 그때의 샤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번 레바논에서 축출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세력이 앞으로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수상이 되려는 샤론의 야망은 크게 지지를 얻을 것이지만 그의 야심은 이스라엘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에게 그가 남겨준 증오와 비판등으로 상쇄될 것이다. 【텔아비브=AP】

南北韓팀이 하나되길…

오늘 아시아청소년 축구 준결승 경기인 남북한 대결을 보고왔다. 『영차、영차』열띤 응원소리가 사라져버린 텅빈 운동장처럼 지금도 가슴이 비어오는 건、내가 응원하던 우리 청소년팀이 졌기때문만은 아닌것같다. 잘싸웠고、시종 손에 땀을 쥐게하는 아슬아슬한 경기였다. 한번 실패는 병가지상사라 열심히 뛰었으므로 장하게 여기고 기뻐한다.

승자인 북한팀에게『그래、기왕 너희들이 이겼으니 끝까지 잘해서 중공을 물리치고 일등이 되어보라』하고 생각한것은 내 핏줄 내 민족에대한 나의 순수한 정 탓인것같다.

그러나 그들이 내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을까에 회의가 풀어진다. 대화가 안통하는 북한의 내형제를 앞에놓고、아 현실을 나의 어린 아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지.

참담한 역경에 처했을때 에 한들에 기도하며 버티어왔던 우리네 어머니들처럼、나도 손모으고 기도한다.

『어느날 남북한 두팀이 하나가되어 막강한 세계제일의 축구팀이 되게하시고 나의 아들 딸들은 분단의 비극을 모르고 마음껏 활개치며 살게해달라』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꿈에도 소원은 통일…』만리타국 싱가포르 운동장에 메아리지던 그노래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윤세순 (P·O·BOX 57 Killeny Road Singapore 9123)】

監督 월터즈 死亡 71歲에…癌으로

뮤지컬영화 「부활절 퍼레이드」「릴리」「침울하지않은 몰리 브라운」등을 연출한바있는 찰즈·월터즈 감독이 지난주 암으로 사망했다. 향년71세.

월터즈감독은 브로드웨이에서 무용및 안무가로서 활약하다 1943년 할리우드로 진출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66년 제작된「달리지말고 걸어라」라는 작품으로 케리·그란트와 故짐·휴톤이 출연했었다.

放送심위賞 결정

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illegible])는 24일 KBS TV의 드라마「소리를 보여주마」(崔常植연출)와 釜山MBC 라디오의「저 넓은바다에 우리의 푸른꿈을」(박준홍연출)을 각각 제2회 방송심의위원회상 TV부문과 라디오부문수상작으로 선정했다.

西歐회사 制裁검토

美, 對蘇禁輸

【워싱턴24日AP·UPI=聯合】 미국정부는 시베리아 가스관장비에대한 레이건대통령의 對蘇禁輸조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있는 프랑스등 西歐협회사들에 대한 후속제재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前新民黨員에 5년

불온유인물 郵送

【釜山】 부산지법 제4형사부 안문태부장판사는 25일 불온유인물을 뿌린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신민당원 이만재피고인(35·부산시南區龍湖1洞4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집회와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8월부터 금년3월 사이에 정부를 비방하고 불법집회를 선동하기위해 불온유인물 1천5백20장을 만들어 가공인물 명의로 유력인사에게 우송하거나 시중에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聯合】

藝術院賞 발표

문학부문 孫素熙씨
미술부문 金基昶씨
음악부문 金東振씨
연극부문 車凡錫씨

예술원은 25일 금년도 예술원상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문학부문에 孫素熙씨(65·여·소설가) 미술부문에 金基昶씨(69·동양화가) 음악부문에 金東振씨(69·작곡가) 연극부문에 車凡錫씨(58·극작가)이다. 수상자들은 부상으로 3백만원을 받게 되는데 시상식은 오는 9월17일 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소강당에서 열린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9>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②

그녀도 혼자서 이를 부득부득 갈기도하고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하느님、신령님 삼신할머니한테 애걸하기도 하면서 점점 찾아지고조되는 진통을 견디었다. 그 땅속까지도 희뿌옇게 밝아오는데도 일환이는 돌아오지않았다. 일환이가 아주 안돌아올지도 모른단 생각도 들었다. 아기는 너무 일찍 태어나려하고있었다.

그럴 리는 없어. 오목이는 두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부정하려고 불에 든 송충이처럼 처절하게 고개를 저었다. 햇빛때문이야. 그녀는 그땅속에 살면서 줄창 햇빛 생각만 했었다. 일환이는 버는것보다 많이 마셔서 늘 생활에 쪼들렸지만 가끔 뱃속의 것을 생각해서 먹어두라고 주착스러울 정도로 많은 돼지고기나 생선따위를 사들고 오기도 했다. 강제로 끌어내다시피해서 음식점에서 기름진걸 먹여준적도 있었다. 그러나 오목이는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모자라는게 영양이 아니라 햇빛이라는걸 알고있었다. 올챙이 과실이나 곡식이 햇빛이 모자라는 아기도 달수를 못채우고 모체로부터 떨어지려하고있다고 생각되자 새로운 공포감이 그녀를 방바닥으로 밀어넣다.

그녀는 배밀이로 더럽고 습한 지하실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땅위로 통하는 계단까지 도달했다. 마침 계단밑에서 파수(破水)가 되면서 공포감은 극도에 달했고 진통은 약간 누그러졌다. 그 바람에 그녀는 기성을 지르며 쉽게 계단을 기어올라 침침한 창고속을 지나 안집마당으로 나설수가 있었다. 안집 마당엔 언제나 그렇듯이 햇빛이 충만해 있었고、오늘따라 사람들까지 여럿이 서 바쁘게 움직이고있었다. 김장을 담그는 날인가보다. 양동이마다 물이 철철 넘치고、빈 독은 하늘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있고、대소쿠리엔 고갱이가 노란 배추가 숨을 죽이고 늘어져있었다.

오목이는 자신이 유령이 아닌가 문득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 자신이 유령이어서 햇빛과 햇빛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무관할뿐더러 그 사람들의 눈에 띄는것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황당했지만 생생했다.

그녀는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위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길고 하늘대는 홈웨어를 입은 안집여자의 고만하게 찌푸린 얼굴도 보였다. 먼저 달려온 낯선 늙은 여자의 치마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오목이는 애걸했다.

『살려주세요. 애기를 낳으려나봐요.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유서방은 어디 갔나?』

안집여자가 앞으로 나서면서 외는 하나까딱 안하고 차디차게 말했다.

『돈、돈을 구한다고 나갔어요』

『이제 와서 돈을 구하러…』

늙은 여자가 오목이의 치마자락을 거들쳐보더니 에그머니나、두어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곧 경험 많고 인정스러운 얼굴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얼른 산모를 즈이 방으로 옮기지 않고 뭘 해. 아이는 벌써 문 잡았는데 돈 구하러 나간 서방도 서방이지만、내보낸 계집도 딱하군. 그래도 애하난 쑥만한 게 나오려나봐. 돈안들이대도 우선 나오고볼 모양이니…』

이러면서 앞장을 서자 여럿이서 오목이를 부축해서 어둡고 습한 지하실로 질질 끌어내렸다.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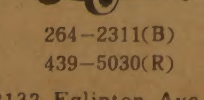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드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각종자개제품판매

한국에서 수입된 각종 자개제품 일부를 CNE에서 전시 판매 중이오니 관람 바랍니다. 교민들에게는 특별 할인 해 드리고 있읍니다.

본점 취급품목 :
각형 TABLE
병풍(4폭, 6폭)
화대 각종 화병,
화장대, 문갑,
패물함 기타
장식품.

CNE 전시장 COLISEUM 내 EAST ANNEX BOOTH 56 (나무조각 전시장앞)
YONG'S LINEN & GIFTS CO., LTD.
Port of East & Kang's Crafts) MAPLE LEAF VILLAGE, NIAGARA FALLS, ONT.

☎ : 593—7882(CNE)
(1) 356—9155(NIAGARA FALLS)

뉴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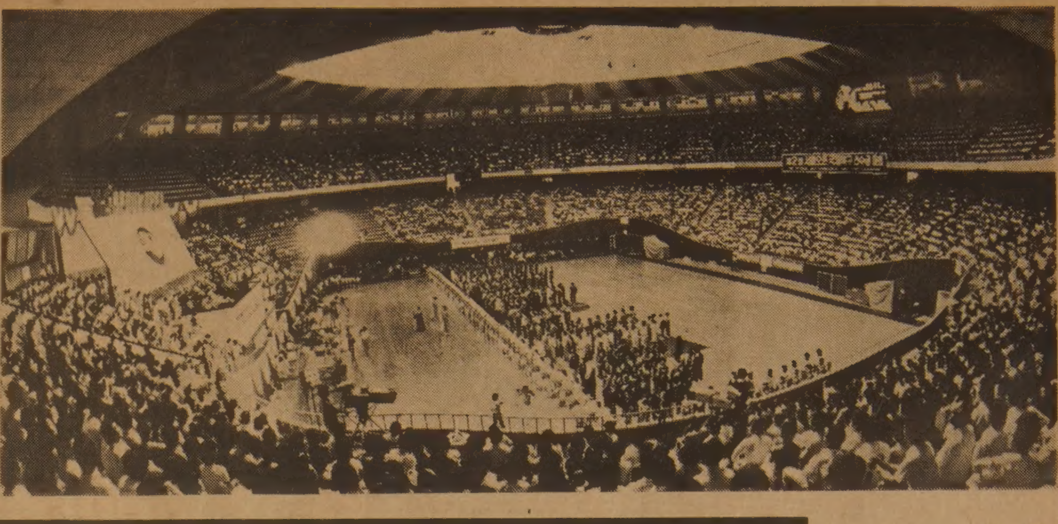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팔레스 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42개국 3백83명이 참가한가운데 서울오픈국제탁구개회식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다。

42개국 熱戰7일 突入

제2회 서울오픈國際탁구 화려한開幕

한국、緒戰 장식

男子B 1시간만에 가나完破…2회전서 英과 격돌

제2회 서울오픈 국제탁구선수권대회가 세계42개국 3백83명(임원1백6·선수2백77명)이 참가한 가운데 25일 하오2시 잠실종합체육관에서 화려하게 막됐다。 이날개회식에서는 알파베트순서에따라 濠洲팀부터 주최국 한국팀까지 42개국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체육관을 가득메운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홍콩、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스위스등 이대회에 처음 참가하는 선수단이 소개될때마다 더욱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다。

팔레스타인 任員혼자 참가… 박수받아

입장식 퍼레이드에서 가장 이채를 띤것은 팔레스타인。 아시아탁구연합(ATTU)부회장으로 아시아탁구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 팔레스타인의 R·터크씨가 선수없이 회의대표자격으로 혼자참가했으나 아랍우방국이 다투어 선수들을팔레스타인 푯말아래로 지원보내 외롭지않은 입장행진을가졌다。

주최국 한국은 웨일즈에이어 마지막으로 입장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해외에있는 鄭周永대한체육회장을 대리하여 金鍾烈부회장이 개회를 선언했으며 대회장인崔元碩대한탁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2년전 아시아지역 최초의 오픈대회로창설된이래 국제탁구연맹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대회가 더욱성황을 이루게되었으며 국제적인 권위와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모든 회원국들이 정치와종교적 신념을 초월、탁구기술발전과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있음을 입증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말했다。

이어 국제탁구연맹(ITTF)의 로이·에반스회장은 『우리의 오랜 노력끝에 탁구경기가 88년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고 88년올림픽개최지로 선정된 서울에서 풍성한 탁구잔치를 열게되어 기쁘다』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

개회식은 명예대회장인 한국방송공사 李元洪사장의 참가선수단에 대한 꽃다발증정으로 끝나고 이어 한국의 전통 민속무용과 고적대、탁구춤、탁구쇼의 공개행사가 진행돼 각국선수단과 관중들의 흥을 돋우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金溶植올림픽조직위원장、李源京체육부장관、金聖培서울시장、레세마 IOC위원(이디오피아)、레세IOC위원(카메룬)과 로이·에반스ITTF회장、R·터크 ATTU 부회장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 남자단체전경기에서 權五澤、尹吉重、盧潤寬으로 구성된 한국남자B팀은 1회전에서 아프리카의 가나를 1시간만에 3-0으로완파하고 2회전에 진출、英國·네팔승자와 겨루게 됐다。

첫 단식에 나선 權五澤은 날카로운 속공으로 가나의조섭·콰샤를 밀어붙여 21-15、21-11로 제압했으며 尹吉重도 2차단식서 로렌스·애디를 21-10、21-15으로 압도했다。 尹吉重·盧潤寬 복식조는 콰샤·애디와의 복식경기서 처음 한세트를 허용했을뿐 2-1로 눌러 토를3-0의 스트레이트승을거두었다。

◇심벌마크

◇남자단체1회전 첫단식서 한국B의權五澤이 콰샤와 열전을 벌이고있다。 權이 2-0으로완승。

◇첫날전적

▲남자단체1회전

한국B 3-0 가나

權五澤 2 (21-11, 21-15) 0 콰샤

尹吉重 2 (21-15, 21-10) 0 애디

尹吉重·盧潤寬 2 (21-8, 14-21, 21-9) 1 콰샤·애디

美國A 3-0 쿠웨이트B

싱가포르B 3-0 카타르A

태국A 3-0 핀란드

인도A 3-0 바레인B

영국 3-0 네팔

서울오픈 탁구落穗

2회째를 맞는 서울오픈 탁구대회는 국내외 탁구선수들을 위한 풍성한 스포츠제전으로찬사를받았다。

이날 개회식에뒤이어 펼쳐진 여러가지 공개행사들을 지켜보며 참가선수들은 감탄을 연발。

특히 국악예술학교 학생들이 보여 준 부채춤과 흥겨운 농악 그리고 恩惠국민학교 1백명 어린이들이 보여준 깜찍한 탁구춤에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부채춤·농악·어린이卓球춤 감탄 연발

異色卓球춤 매료

○…탁구춤은 이번대회 공개행사의 백미였다。 갑작스럽게 플로어로 밀려드는 초립동과 댕기머리 소녀들의 출현부터가 시선을 끌었으며 국민학교 2、4학년 어린이들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깜찍하고발랄한 연기로 관중들을 매료시켰다。

머리보다 더큰 탁구라켓을 든 초립동과 댕기머리 소녀들은 오색띠를 펼쳐놓고 탁구시늉을 보이다가어느결에 동그랗게 맞아서탁구의 서울올림픽 채택을기념하는 五輪을 수놓아 박수를받았다。

연기도중 플로어에 소도구가 떨어지자 초립동이재빨리 고사리손으로 줏어감추는 모습은 성인들의 완벽한 매스게임보다 훨씬생기있고 흐뭇한 정경이었다。

어린이들은 오린지빛 탁구공을 관중석에선사하고 참가국 국기를 흔들며 퇴장、박수를받았다。

이 탁구춤은 대회조직위원회가 이번대회에 대비해 恩惠국민학교에위촉、연습을 한것으로 40일간 색동옷、탁구라켓등 의상과 소도구 구입비、간식비등으로 1천1백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지도교사 金順英씨(32)는『한국의 전통과 탁구를 美的으로 조화시켜보았다』고 처음연출된 탁구춤을소개했다。

활짝핀 民俗율동

○…공개행사의 국악예술학교 학생들의 민속무용은 화사한부채춤과 경쾌한 리듬의장고춤、흥겨운 농악무가 한데 어울려 더욱 서울오픈의 잔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순백의 치마와 빨간저고리를 입은 여학생들은 분홍빛 부채를 펴들고 우아한 율동으로 플로어를 누볐으며 만발한 무궁화의 형태를 그려내 갈채를 받았다。

3千弗든 卓球쇼 佛세크레탱 人氣

○…1회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국내에 선을 보이는 프랑스의 세크레탱과 피르카르의 탁구쇼는 재미있는 소도구와 익살스런연기로 여전히 큰 인기를 모았다。

탁구선수로서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미、시종 관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관중들의 인기를 모은 세크레탱—뻬르카르탁구쇼。

車範根 2골

西獨프로축구 아인트라흐트·프랑크푸르트팀서 활약하고있는 車範根은 25일 새벽(한국시간) 레버쿠젠팀과가진 82-83년도전반기시즌 두번째 홈경기서 혼자 2골을 기록했다。 이경기서프랑크푸르트는5-0으로대승했다。

10개國 풀리그

世界야구選手權 쿠바·콜롬비아不參

한국·伊 開幕경기

오는9월4일부터 서울(잠실야구장·서울운동장)과 仁川에서 거행될 제27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는 4連覇를 노리는 쿠바와 콜롬비아가 불참을 통고해옴에 따라 출전국은 한국、일본、자유중국、미국、캐나다、네덜란드、이탈리아、파나마、도미니카、호주등10개국으로 최종확정됐다。

대한야구협회는 25일 쿠바와 콜롬비아가 자국사정에 따라 불참을 통보해왔다고 밝히고 대회기간도 당초예정했던 18일간에서 14일간으로 단축、10개국이 풀리그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대회개막경기는 4일하오 3시 잠실구장에서 한국—이탈리아의 대전으로벌어진다。

한편 세계대회에 앞서 아시아야구연맹총회(9월1일·회원국7개국)와 국제야구연맹총회 (9월2~3일·회원국42개국)가 영동 한국종합전시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세계야구선수권 일정표

일자	잠실구장 3시	잠실구장 6시	서울운동장 1시	서울운동장 4시	인천구장 2시반
4	伊—한	美—加		파—中	
5	한—美	和—파	中—伊	加—도	日—濠
6	도—파	伊—日	濠—美	中—加	和—한
7	日—中	濠—加	和—伊	美—도	
8	濠—和	한—中	도—日	加—伊	美—파
10	美—和	파—한	加—日	伊—도	中—濠
11	한—加	日—美	도—濠	中—和	파—伊
12	파—加	도—한	伊—濠	和—日	
13	한—濠	中—도	日—파	伊—美	加—和
14	美—中	한—日	도—和	濠—파	

※파=파나마 도=도미니카 和=네덜란드 加=캐나다 伊=이탈리아

韓日 高校야구 選手 어제出國

내일부터 3차전

27일부터 일본오오사까(大阪)에서 열리는 韓日고교야구대회 참가할 한국선수단(단장·盧楨鎬)이 25일하오2시 KAL便으로 출국했다。

선수단은 27일부터 3일간 금년도 고시엥(甲子園)대회우승팀 이께다(池田)高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된일본고교대표팀과 3차전을 갖는다。

70년부터 시작된 이대회역대전적에서 한국은 21전8승4무9패를 기록하고 있다。

김명종한약방

침·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기혈부족·신경과민·노이로제·허리병·근육통·부인병·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 금 : 오전11시~새벽2시 /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3470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4 PM~4 AM /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 977-9734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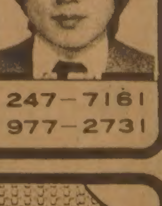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장애자 4명 法官任用탈락

司法史上처음 研修院까지 修了했으나

“장애자福祉法 외면한것” 在野법조계도 “衝擊”

사법고시에 합격한후 연수원까지 수료, 법관을 지망했던 신체장애자 4명이 「지체장애」를 이유로 법관임용에서 탈락된 사실이 밝혀져 본인들은 물론 전국소아마비협회와 재야법조계에 큰충격을 주고있다. 신체장애자가 법관임용에서 탈락된 사실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로서 탈락된 4명은 朴股秀씨 (26·大邱市中區東仁洞1街263의1) 朴燦씨 (27·서울城東區下往十里1洞363) 趙炳勲씨 (26·서울道峰區彌阿洞791의49) 金伸씨 (25·부산西區堂里洞부원아파트5동603호) 등이다. 이들은 『신체장애자로서의 시련을 극복, 사법시험에 합격한후 법관을 지망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자신들은 물론 전체신체장애자들에게도 좌절을 안겨주었다』면서 부당한조치가 철회될때까지 투쟁할것을 다짐하고있다. ★관련기사2면

“후배들 위해서 끝까지 徹回투쟁”

“福祉國家지향… 당국서 再考해야”

이들은 또 『사법부의 권위에 손상을끼칠 생각은없다. 판사가 아니더라도 변호사나 학자로서 얼마든지 우리의 길을 갈수있지만 사회에 진 빚을 갚기위해 판사를 희망했던 꿈이깨져 실망이크다』고 말했다.

25일 하오 서울城東區九宜洞 정립회관에 모인 이들은 이같은뜻을 정립회관관장 黃年代씨, 한국소아마비협회부회장 宋永熤 변호사(46)에게 전하고 이번일이 파문없이 수습될것을 희망했다.

생후8개월만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朴燦씨는 『변호사로 전향할 마음의준비는돼있다. 그러나 후배와 동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선례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더하지만 이번일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닌것이 확실하므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체가 자유스럽지못하다는 한가지이유로 어려운 사법시험에 패스했다가 법관임명에서 탈락된 4명。이들은 『직무수행에 지장이없기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은 재고돼야한다』고 입을모았다。

朴股秀씨 (25)는 『장애자복지법이 발효된싯점에 사법부에서 장애자를 차별한다는 것은 복지국가로의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수밖에없다』고 주장했다.

국민학교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趙炳勲씨도 『장애자복지법에 엄연히 장애자가 불이익을받는것은 있을수없다고 규정하고있는 제5공화국이 복지사회이념을 추구하는 마당에 사법부에서 이같은결정을내린것은 납득할수없는 처사』라고 말하고 金伸씨(25)는 『이번일이 법관의 수급계획에 차질이생겨 일어난일로 믿고싶으며 차후라도 기회가 주어질것을 바란다』고말했다.

이들4명은 모두 지난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합격한 사법연수원 12기생이다.

사법연수원 12기수료생은 1백49명이었는데 이가운데 법관지망생은 이들 4명을 포함, 44명이었고 법관제대자 26명까지합해 모두 70명이 법관을 지망했다.

법관지망생 70명중 지난21일 인사발령에서 모두 5명이 탈락됐는데 이중 1명은 신원특이자로 지망을 자진철회했으며 이들 4명은 이유도 모르는채 신문을통해서야 인사발령에서 탈락된 사실을알게됐다는것.

朴씨등은 탈락직후 법원행정처에 문의했으나 뚜렷한답변을 듣지못해 결국 자신들이 신체장애자라는 이유로탈락된 것으로 단정, 정확한 이유를 끈질기게 문의한 결과 『사회가 점차 다양화 복잡화되면서 법관의 활동성도요구받는시대가 됐기때문에 신체장애자로서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성적도 중간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朴股秀씨는 1백49명가운데 80등이었고 趙씨는 93등이었다.

한편 趙씨는 대학입학 당시에도 S大의대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역시 신체장애자란 이유로 불합격돼 建國大법대에 다시 입학, 법학시험에 합격했다.

한편 현재근무중인 법관중에도 지체가 부자유스러운사람이 4~5명가량있고 현재 13기 사법연수원생중에도 지체부자유자가 10여명 있으며 과거 대법원장을지낸 金炳魯씨나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李仁씨도 지체가 부자유했던 인사들이었다.

대법원 당국자는 이에대해 『금년도 법관수급 계획은 정책적 고려에서 65명으로확정돼 있었는데 70명이 지원했고 1명이 자진철회했으며 69명이 남았기때문에 이가운데서 65명을 선발한 것이다』면서 선발원칙은▲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수료성적▲연수원생활을 통한 인격·품성·능력·자질·생활태도및 국가관등에 대한 고과내용▲신체적조건▲면접결과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특히 신체적조건에 있어서는 현장검증등 국내출장과 국외연수등 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법관은 다른 직업보다도 품위와 위신이 유지되어야 한다는점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또 『신체적 조건에 있어서도 지체부자유자로서 법관을 지망한 5명을 전부 탈락시킨게아니고 업무수행이 가능한 1명은 임관됐고 나머지 4명은 법관이아닌 다른 직역에서도 예방법학이나 법률구조분야에서의 활동이 기대되기때문에 법관임용에서 제외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당국자는 탈락된 4명가운데 1명은 다리를 심하게 저는데다 한쪽눈이 실명에 가까우며 3명역시 다리를 심하게 저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法大3년때 소아마비를 앓아 판사임명에서 탈락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宋부회장은 『나자신은 지체부자유의 정도가심해 직무수행에 지장이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부당성을 느끼지 않지만 이번에 탈락된 4명은 정상인과 다름없이 판사의 직무를 수행할수있다고믿기때문에 이번처사는 이해하기어렵다』고 말하고 『사회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차제에 정부기관이 장애자를 거부한다면 어찌 민간업체로하여금 장애자의 취업을 장려할수있겠는가』고 반문하고 현재사법연수원과 각대학에서 공부에 열중하고있는 후배들을위해서라도 당국의 재고가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선행한女大生에 學資金융자 제의” 慶南銀 서울지점

경남은행 서울지점(지점장 宋國憲)은 25일 재미교포가 잃어버린미화8천달러를 주워되돌려준 祥明女師大 체육과3년 金美子양(22·본보25일자11면보도)이 희망할경우 졸업때까지 학자금융자를 대주겠다고 본사에 알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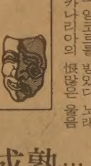
「그때 그 女子」 3년만에 再起한 가수 沈守峰

가슴앓이로 쌓은 成熟…“자서전 써요”

가수 沈守峰(사진)은 역시 「그때 그女子」였다。흐느끼듯 묘한 감칠맛을 남기며 간드러지게 넘어가는 그의 목소리는 3년이 지났어도 여전했다。

지난15일 明洞 U홀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사람/언제나 말이 없던 그사람」으로 이어지는 「그때 그사람」의 노래가락이 청승맞게 흘렀다。술에취해 떠들던 손님들은 전기에라도 감전된듯 숨을 죽였고, 노래가 끝나자 홀이 떠나가도록 앙코르를 연발했다。

바로 沈守峰의 재기무대였다。그녀는 눈물로 앙코르를 받았다。노래를 잃었던 카나리아의 恨많은 울음이었는지 모른다。『지난3년은 정말로 길었고 변화도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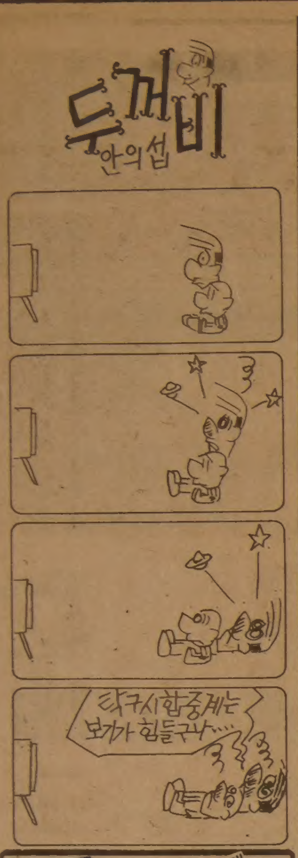
그녀의 말처럼 목소리는 옛날과 다름없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때 그사람」이 아니었다。역사적 격변기의 싯점뒤의 3년은 30년만큼이나 변화를 가져왔다。

전파상에서 흘러나오는 「그때 그사람」의 노랫가락이 한창 심금을 타고들때 「방송출연금지」처분을받았고 결혼식없는 결혼과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뒤를 이었다。이젠 노래를 포기했나 싶었을때 심령과학을 하는 남편과의 결별과 가요계 컴백소식이 들려왔다。『3년이란 세월은 한여자로서의 행복과아픔을 맛보게했다』는 그녀의말처럼 자신의 히트송 「그때 그사람」「당신은 누구시길래」「아낌없이 바쳤는데」로 이어지는 삶을 그대로 밟았다고나 할까。

기타를 치며 노래부르던 때의 앳된 모습보다 30이넘은 여인의 성숙미와 세련미가 엿보이는 그녀는 또 말이없는 여인이 돼버렸다。남편과의 결별에 대해서도 하나의 城을쌓아놓고 그안에서 군주행세하려는 사람과 「노래세계」를 찾으려는 사람사이의 「이별」이라고만 얼버무린다。

그녀는 요즘 영화 「長恨夢」(일명이수일과 심순애)에 출연계약, 沈順愛역을 맡게됐다。영화속의 사연이야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長恨夢」이란 제명은 그녀의 지난 3년간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요즘 자서전을 쓰고있어요。하루에 한장도 쓰고 두장도 써요。간직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면서 지난날의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켜 보겠어요』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녀는 무슨 얘기를 쓰겠다는 것일까。【李亨基기자】



檢察 변호사被殺사건 발표

“土地가로챈 根據없다”

公簿上엔 犯人부친과 無關

서울지검형사3부(徐翊源부장·李相亨검사)는 25일 金琦鉉변호사 대낮 피살사건의 동기부분으로 알려진 水原市中洞50의 대지및 가옥에관한 소유권문제를 조사한 결과범인 李培鎭의 『그땅은 아버지 李李奉씨 소유로 金변호사가 가로챘다』는 주장은 공부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밝혀졌다고발표했다。★관련기사10면

검찰발표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1911년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최초로 생겼을때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의해 토지조사가 실시돼 범인 李의 사촌매부인 李鳳煥씨(57)의 아버지 李致範씨(사망) 소유로 등기가 돼있었는데 6·25동란중 공부가 소실돼 땅소유주가 없는상태로 있었다는것。

이러한 사실은 당시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해 확인이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후 이땅은 75년 5월 李鳳煥씨 앞으로 보존등기가돼 있다가 75년 7월 梁亨錫씨(사망)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당시 李鳳煥씨는 水原시청에 다니던친구로부터 『자네 아버지땅이 토지조사부에 남아있으니 찾으라』는 말을듣고 이땅을찾기위해 梁씨에게 찾아갔으나 梁씨가 『이미 내가살고있는 집이니 적당한값에 매도하라』고해 우선자기앞으로 보존등기를했다가 1백80만원을받고 梁씨에게 이전등기를해 줬다는것。

따라서 이땅은 1911년 최초로 李致範씨 소유로 등기된후 75년 梁씨에게 이전될때까지 李致範-李鳳煥-梁亨錫씨로 이어졌을뿐 공부상으로는 李의 아버지에게 이땅을 팔았다는 일본인 오다나 李의 아버지 李李奉씨의 이름과 권리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인李가 아버지李씨와 日本인 오다의 매매계약서를 갖고있는점에 대해서 검찰은 매매계약일이 45년10월로돼있는 점으로봐 해방후 2개월이 되도록 일본인이 남아 땅을팔만큼 여유가있을수 없고 설사 매매가 있었다해도 공부상으로는 오다의이름이 전혀없는것으로봐 오다가 사기행위를했거나 매매계약서가 허위작성된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숨진 金변호사의 딸 貞淸씨(49)가 『문제의집을 水原관사로 이용하게된것은 당시 水原지청 사무과장이었던 이창규씨가 주선해준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함에 따라 이를 확인한 후 李씨를 수배한결과 李씨는 이미 3년전에 사망한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숨진 金변호사도 지난72년 범인李의 살인미수사건이 있었을때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해 『문제의 집은 당시 경기도관재국에서 국가에 귀속된 적산가옥을 기관장들에게 임대해 준 것을 받은 것이며 仁川지청장으로 갈때 이집을 관재국에 반납했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공부상 공백기로돼 있는 1911년~1975년 사이의 권리이전 관계를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산·세바스찬映畫祭 오는 9월17일개막

제30회 산·세바스찬 국제영화제가 오는9월17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산·세바스찬에서 열린다。세계각국에서 총2백60여편의 작품이 출품될것으로 알려진 同영화제에서는 독일의 故 라이너·베르너·파스빈더감독추모전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아직도 아침일찍 고생하십니까?
◈아직도 아침일찍 Food Terminal에 가셔서 고생이십니까? 제 도매 가격을 보면 누구나 놀라십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에 더욱 자 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사오니 직접 내방 Pick-up하시거나, 또는 주문해 주시면($150이상) 감사하겠읍니다.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CARLAW
PAPE AVE
DANFORTH
RIVERDALE PLAZA
GERRARD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中國良藥 大量供應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Scotia Bank
Toryork Dr.
Weston Rd.
Finch AVE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 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저녁6시 이후 전화바람)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가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웨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여자 캐쉬어 토·일요일하실분 구함.
오전12시~저녁8시까지. 다운타운.
전화 : 921-0624

유경험자(남자) Helper구함. (Full & Part time 또는 주말)
스카브로지역 거주하시는 분 환영.
대우 우대함. 전화 : 691-8602

지렁이를 계속 잡으실분 원함.
전화 : 922-3061

가정에서 봉제품을 완전히 만드실분 구함.
전화 : 530-1046 (Mrs.한)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Western Area. 내방바람.
261 Scarllet Road at Eglinton Ave. W.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Milk Store에서 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유경험자)
오전 8시-오후 4시(Downtown지역) Full Time
전화 : 624-5817 (Mrs. 차)

Part Time Sales people for painting & other Art objects.
전화 : 920-1420(저녁시간에 영어로 문의바람)

치과에서 일하실여자 Receptionist 구함.
경험있으신 분이면 더욱 환영하며 영어를 자유로 구사하실수 있는 분이어야 함.
전화 : 233-9454 or 233-4888
Dr. Mark Kochman

"봉하농장" 본농장에서는 토론토는 물론 타지방(캘거리, 에드몬톤, 몬트리얼) 교포들에 바쁜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와 수요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새 건물을 신설하여 식품가공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맛인 각종김치, 깻잎, 고추잎장, 다꾸왕, 짠지무등을 생산하는데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농장에서 장기 기거하며 수고하실수 있는 여자 약간명 구합니다.
전화 : 1-775-6256 Mr. 강

Mac's Milk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Full Time)
South of Eglinton & Kennedy
전화 : 261-4082 (Mrs. Lee)

제일식품에서 일하실 아주머니 구함.
(Full Time) 전화 : 532-1054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7692

기술직 사원 모집

◉자 격

1) 고졸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신체 건강한자.
2) 인쇄용 카메라(NUARC) 취급경험이 있거나 훈련 받을분.
3) 운전 경력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4) 신문제작및 발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할수 있는분.

본사 공무국(박정서 국장)으로 직접 내방하시거나 자필 이력서를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사 공무국
전화 : 533-2364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두 아기와 가사돌볼분 구함.
위치 : 나이아가라에서 20분거리 미국 버팔로 뉴욕.
전화 : 1-716-634-5839 (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아기보아 주시고 살림 약간 도와주실분 구함.
(일요일은 쉼) (Bloor & Jane)
전화 : (B)535-1210 (R)762-2562

개인지도

바이올린 고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집렌트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4시이후 연락바람)

Town House 방세 놓음.(Don Mills 지역)
직장여성이나 혼자 사시는 여자분 환영($170/M)
Hwy 401 & D.V.P.에 가까움. 전화: 449-1913 (오후8시까지)

매매

House Sale or Rent (Special Discount)
위치 : Victoria Park & Van Horne
Det. Brick. 3 Bed Rm. Bung. — Cent. Air Con.
2 Car Gar. with Elect. gar. Door Openner
Mortgage: 1st. $66,000(13%), 2nd. V.T.B.
Sale: $149,000. Rent: $850-$700. 전화 : 494-9679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 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ing 매매.
모든 Business에도 적합한 좋은 조건의 위치.크기: 8 Rooms.
아스킹 : $219,000 전화 : 921-9847, 923-2872 (William)

Convenience Store — 주매상 : $6,000
로타리오+비데오(Rent Cover) 리스: 3년+5년+5년+5년
아스킹: $65,000. 3772 Lawrence Ave. E. 내방바람.

---

615 Bloor St. W 에 위치한 성업중인 식당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매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나이아가라 지역 — 위치와 조건좋은 그로서리 스토아 주인 건강관계로 급매. 주매상 : 4,600-5,000불 보장
리스 : 5년+3년 2층 살림집 있음.
꼭 관심있는 분만 연락요망.
전화 : 1-892-5251

아파트렌트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380
(리스 한달반 남았음) 105 Westlodge Ave.
(Queen+landsdowne) 전화 : 531-0960

아파트 "Sublet" (다운타운 지역) 9월1일 입주가능.
위치 : Queen St. & Roncesvalles 1 Bed Rm/$406
(하이드로 포함) 전화 : 536-4701 Mrs. 리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VISA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과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조 석 민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 남·녀 컷, 파마전문
•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경축

전두환대통령각하내외분의 캐나다 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전대통령 각하의 캐나다 방문으로 양국간의 정치·경제·사회 및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유대및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본 점
☎ : 364-2890

지 점
☎ : 533-8593

캐나다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친절히 처리해 드립니다.